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래!

2019년 2학기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경감!



추진 목적

-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시행 방안

-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

대상 학교

-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제외 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지원항목

-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2019년 2학기

2020년

2021년~

적용 학년

3학년

2·3학년

쫄학년

대상 인원 (예상)

49만명

88만명

126만명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9년 8월 특별기획 - 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Vol. 445 2019. 8.



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1학생 1스포츠’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경기 이의초등학교 ‘세종도서관’

Story

AUGUST 2019 Vol. 445

05



COVER STORY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끝자락에, 여름 방학임에도 학교도서관을 찾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경기 이의초등학교(교장 김재현) 아이들을 만났다.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어느덧 책이 소중한 벗 같다는 아이들. “애들아, 준비됐나? 우리 함께 책 속에 ‘퐁당’ 빠져볼까?”

18



22



30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4

Contents

특별기획

- 02 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 04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 05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
- 08 선생님 기고글_ '배울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학부모 기고글_ 평등한 출발선이 주는 의미
- 10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 14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현장이야기

- 18 꿈이 영그는 현장 경기 이의초등학교 '세종도서관'
- 22 삶과 교육 김문섭 강원 사북고등학교 교사
- 26 우리교실, 프로젝트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수학으로 세상놀기'
- 30 아하! 진로체험 국립중앙과학관 '2019 항공우주특별전'
- 32 창업공방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 34 명예기자 리포트 화성노진초, 배움과 삶의 일치 '기부'로 실현 외

정책이야기

- 38 정책N전망 유아 눈높이에서 '놀이'로 배우는 즐거움 「2019 개정 누리과정」
- 42 교육부 JOB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복지정책과'
- 45 정책 토크 '1학생 1스포츠'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50 이슈1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 52 이슈2 제3회 미래수다(秀多) 토크콘서트
- 56 대학교육 BK21 20주년, 그 성과 및 향후 계획
- 59 꽃 피는 교육자치 문흥초, 정당중심 학생회 선거 눈길 외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①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자신감이 없는 지훈
- 70 교사상담실 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 72 이야기 인문학 서원의 화려한 부활
- 74 일상의 심포 평화의 길, DMZ와 나란히 걷다
- 78 뉴스 브리핑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 마련... 교육 관련 활동 장려 외
- 80 행복 게시판

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 1_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고3학년부턴 단계적 시작, 2021년 완성
- 2_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 3_ 선생님 기고글 '배울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학부모 기고글 '평등한 출발선이 주는 의미'
- 4_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법적 근거 정비 서둘러야
- 5_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OECD 16개국, 고등(대학)교육까지 무상 추진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고3학년부터 단계적 시작, 2021년 완성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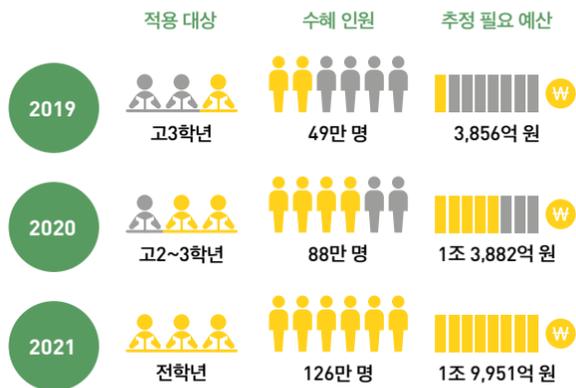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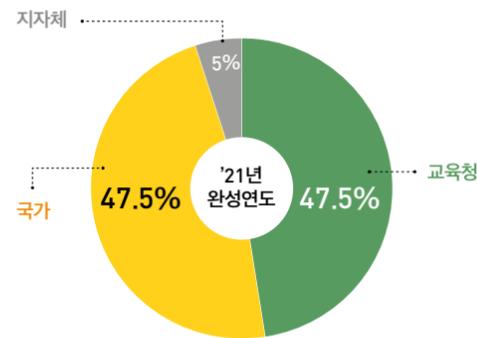
지원 범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시행계획(2021년도 완성)



고교 무상교육 자원 분담(2020~2024년 5년간)



'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 7년 만에 실현 서민계층 소외된 기형적 교육비 지원 구조개선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019년 4월 9일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7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계에서는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인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 교육은 미래사회의 한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보편적인 교육수준이며,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이유 및 필요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헌법적 가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국가의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즉,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에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맥락은 2013년 대통령 공약에서부터였지만 소득계층별, 지위별로 불평등한 고등학교 학비부담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 지역 간 교육격차 및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상존하고 있었다.

2018년 고등학교 취학률 93.3%로 보기에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부모가 공무원, 사립교직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 건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들뿐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서민층은 자신이 부담하는 매우 기형적인 부담 구조라는 것이다.

2017년 고등학교의 연간 학업중단자 수는 24,506명(학업중단율 1.5%)에 달하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66.7억 원이고, 수업료 미납자는 14,914명에 이른다. 학업중단자의 수업료는 불납결손 처리하기 때문에 미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무상교육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다.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다양한 교육이 획일화 될 수 있어서 무상교육으로 하는 것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는 취지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무교육의 정신과 똑같다. 이것이 부모의 소득계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고교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비 지원 구조가 무상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국제적 동향 및 헌법적 가치

2018년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국가 경제의 규모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수준도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가장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마저도 수십 년 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유럽 및 유럽 여러 나라들은 유·초·중등교육(공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교육)마저도 무상화 하거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위상 회복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고자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들뿐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서민층은 자신이 부담하는 매우 기형적인 부담 구조라는 것이다.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기하고,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를,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의무교육은 세계 각국의 헌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제도이다.

실제,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는 교육의 기초단계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도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무상’ 원칙이 정착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서구 선진국은 공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무교육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의무교육이 ‘국가·사회의 기본이 되는 국민교육’이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과 교육관련 법제에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누구도 교육상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의무교육의 현대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교



육에서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과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근본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을 받고, 서민층이 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교육비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실시되는 정책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성격까지 규정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경쟁과 차별 중심 사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즉 교육권 보장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공교육)을 명확히 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이와 함께 미래인재양성의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초·중·고교를 넘어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선생님 기고글

‘배울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인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의무무상교육인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간혹 보게 된다. 배움에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가난을 자신의 치부로 생각하고 12년간 담임선생님께 자신의 가정환경을 밝히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1만 5천 명의 고교생이 수업료 내지 못하는 현실

비교적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갑작스레 가세가 기울거나, 부모님의 실직, 혹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 중인 자녀들의 경우이다. 소득 수준은 많지 않는데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실제로 현재 고교생 중에서 15,000명(66.7억 원 규모)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장학금을 조성해 수업료를 내주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가정환경이 어려운 제자들이 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속으로 삭이는 모습은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 고교 3학년 담임으로서 매우 반갑기 그지없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좀 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무상으로 무언가를 모두 다 지원해준다는 말에서 벗어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민주시민 교육 양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상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 교육’으로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책임지자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일심동체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학부모 기고글

평등한 출발선이 주는 의미

차에 대해 너무나 슬픈 현실을 많이 봐왔다. 아파트 평수별로 몰려다니는 아이들, 빌라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과시하며 허영과 자만심으로 친구를 대하던 아이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 빈부 격차로 차별받고 아파하고 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이던 시절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자기보다 약한 이를 포용할 수 있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인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뉴스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가 기억난다. 고3과 중3인 두 아이를 가진 학부모로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무상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비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대학도 아닌 고등학교 학비가 무슨 그리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식비, 교복비, 학원비에 유행하는 옷도 사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분기별로 내야 하는 고등학교 학비가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니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빈부 격

고교 무상교육,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앞으로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차이 등을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십여년 전, 둘째 아이의 친구 중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뉘두리가 문득 떠오른다. 월급 받는 집이 부럽다고, 자영업은 경기 탓에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너무 어렵다며 앞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한숨 쉬곤 했었다.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시행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인**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법적 근거 정비 서둘러야



지난 4월,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오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상을 끝내고 구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상교육을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과 같은 무상복지 시리즈로 보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무상교육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무상교육은 넓게 보면 무상복지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구분한다면, 무상복지는 부가적 교육 서비스인 반면에 무상교육은 핵심적 교육 서비스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국가는 국민들이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적어도 보통교육인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보다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우를 범했다. 이제라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방기해왔던 보통교육의 책임을 재인식하고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교육제도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여야나 보수·진보 구분없이 교육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시방법에 대한 시각차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이고,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 고등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2, 3학년(88만 명), 2021년에 전학년(126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완성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 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연간 1조 8,932억 원)을 '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하되, 국가는 분담액을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일반 지자체는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 규모(총 소요액의 5%)만큼은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다. 올해 세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9년 2학기 시행예산(총 소요액 기준 3,856억 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로 하였고, 7월 현재 모든 시·도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의결한 상태다.

2025년 이후의 재원확보 방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적했듯이, 국가가 절반만 부담하기로 한 것, 임시적인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 그리고 5년 후의 재원확보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에는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되지

만, 무상교육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증액 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고교 무상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가 소요재원의 절반을 증액교부금으로 교부한다고 법제화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소요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될 수 있어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급지별·학교유형별 등록금 단가를 정하고, 재학생 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안정적 재원확보 위한 법제화 서둘러야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여부는 소요재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증액교부금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재원 지원 방식이므로 서둘러 안정적인 재원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결국은 교부율을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어렵다면 차선택으로 내국세 교부금 예산 연동형 보조금제도를 고려해볼 직하다. 즉,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되, 교부금 예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늘 경우 그 차액만큼 재원을 추가 보전하는 것이다.

한편, 무상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도와 충청남도 사례를 보면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도 조례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과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늦어도 2019 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되,
교부금 예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늘 경우
그 차액만큼 재원을 추가 보전하는 것이다.

향후 무상교육 제외된 재학생 지원 검토를

다음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학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립 고등학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선행조치, 즉 무상교육 재원의 지원 방법과 절차, 무상교육 재원 지원으로 인한 부담한 지시·감독 배제 원칙, 부당한 재원 삭감 금지 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고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결손 보전금을 재정결합보조금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보전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포함된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보완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예외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교육이 소득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무상교육 제외 근거를 자발적 선택에 대한 등록금 부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찾는다면, 예를 들어 자사고와 특목고를 선택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논리와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이들 제외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부부담 경감보다는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나면, 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지원 제외 학교 재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⑤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OECD 16개국, 고등(대학)교육까지 무상 추진

누구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각국의 헌법 내지 교육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자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선언하고 있는 권리가기도 하다.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국제경쟁력 격화, 학력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교육개혁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확대되는 교육격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재정 정책과 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적극적이다. 여기에서 교육재정이란 국가재정, 지방재정 중의 교육비에 관한 부분으로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교육비 경감대책은 수업료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① OECD 국가의 의무무상교육 ② 최근의 의무무상교육 동향 ③ 교육기회 균등정책의 확대 경향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의 의무무상교육

19세기 중후반 이후 공교육이 국가제도로 도입된 이래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보통교육단계의 무상교육은 오랜 전통이다. 즉, 교육의 기초단계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무상 원칙이 정착되어 있다. OECD 가맹국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 국가에서 고교 교육단계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일부 국가의 제도 기준을 소개하면 [표1]과 같다.

[표1] OECD 주요 국가의 의무무상교육 내용

국가명	교육급여			무상교육의 대상				주요내용
	기간	시작 연령	종료 연령	초	중	고	대학	
오스트레일리아	12년	6	17	○	○	○	×	• 의무교육은 6세에 시작하여 17세 또는 12년간 교육을 이수하면 종료
벨기에	12년	6	18	○	○	○	×	• 1914년 의무교육기간 8년 • 1983년 의무교육기간 12년
캐나다	11년	6~7	16~18	○	○	○	×	• 교육에 관한 권한은 주에 있음. • 1910년까지 캐나다 모든 주가 의무교육 도입
덴마크	10년	6	16	○	○	○	○	• 1958년 의무교육기간 7년 • 1971년 의무교육기간 9년
핀란드	10년	6	15	○	○	○	○	• 1921년 의무교육기간 6년 • 1998년 의무교육기간 10년
프랑스	10년	6	16	○	○	○	○	• 1936년 의무교육기간 8년 • 1959년 의무교육기간 10년 • 2019년 의무교육취학연령 하향(3세)
독일	11~12년	6	18~19	○	○	○	○	• 주에 따라 학교제도가 다름. • 16개 주의 의무교육기간은 11년 (12개주), 12년 (4개주)임.
이스라엘	12년	6	18	○	○	○	×	• 1949년 의무교육기간 10년 • 1953년 의무교육기간 12년 • 2007년 의무교육 수료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
일본	9년	6	15	○	○	○	×	• 1907년 의무교육기간 6년 • 1947년 의무교육기간 9년 • 201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네덜란드	12년	5	18	○	○	○	×	• 1961년 의무교육기간 10년 • 1981년 의무교육기간 12년 • 12년의 의무교육 종료 후 2년간의 시간제 무상교육 참가 가능
스웨덴	9년	7	16	○	○	○	○	• 1842년 의무교육기간 7년 • 1962년 의무교육기간 9년
영국	11~12년	4~5	16	○	○	○	×	• 의무교육기간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11년, 북아일랜드 12년 • 2013년부터 의무교육 종료 후 2년간의 의무 계속교육 도입

주 : ○ 무상교육, × 유상교육

최근의 의무무상교육 동향

의무교육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교육제도로 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 제도 기준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최단 5년에서 최장 14년의 의무교육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의 평균 의무교육기간은 2000년 11.3년에서 2015년 12년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각 주는 공교육 무상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하여(상한 연령을 두지 않는 주도 있음) 모든 국민이 고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표2] 참조). 그리고 일부 주는 지방 학교구에 보조금을 줄 때 평균 출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교육재정 정책을 통하여 고교교육의 수료를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4년에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12년 국민기본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08년의 교육기능법(Education and Skills Act)

에서 의무교육 후 2년간 18세까지 교육 훈련 계속(Raising the participation age, RPA)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표3] 참조). 이 제도는 10대 후반 청소년의 교육·훈련 참가를 높여 청년실업자(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를 감소 시키고자 하는 인재육성 정책이다.

[표2] 미국의 무상의무교육 제도 기준

주명	의무교육 도입연도	의무취학연령			공교육 무상연령		근거법률
		1915년	2000년	2015년	하한	상한	
캘리포니아	1874	7~15	6~18	6~18	5	21	Cal. Educ. Code 48200
코네티컷	1872	7~16	7~16	5~18	5	21	Conn. Gen. Stat. §10-184
플로리다	1915	-	6~16	6~16	4	상한없음	Fla. Stat. Ann §1003.21
아이오와	1902	7~16	6~16	6~16	5	21	Iowa Code Ann §299.1A
매사추세츠	1852	7~16	6~16	6~16	3	22	Mass. Gen. Laws. Ann. ch. 76 §1
미시건	1871	7~16	6~16	6~18	5	20	Mich. Comp. Laws §380.1561
뉴욕	1874	8~16	6~16	6~16	5	21	N.Y. Educ. Law §3205
펜실베이니아	1895	8~16	8~17	8~17	6	21	Pa. Cons. Stat. Ann §13-1326
버지니아	1908	8~12	5~18	5~18	5	20	Va. Code. Ann §22.1-254
위스콘신	1879	7~16	6~18	6~18	4	20	Wis. Stat. Ann §118.15

[표3] 영국의 의무교육과 의무적 교육훈련의 비교

구분	의무교육	의무적 교육훈련
근거법률	Education Act 1996	Education and Skills Act 2008
대상연령	5~16세 11년간	17~18세 2년간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교육 ※ 통상 학교교육이지만 홈스쿨링(재택교육)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또는 시간제 교육·훈련 취업자는 시간제로 교육 또는 훈련 참가 견습 훈련 프로그램
교육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일제 교육 참가는 부모의 의무 의무교육 위반자는 내용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또는 시간제 교육 또는 훈련은 본인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없음. ※ Level 3(후기 중등교육 수료 상당) 자격 취득자는 교육·훈련 예외
교육비	무상	무상

교육기회 균등정책의 확대 경향

최근 공교육 무상원칙은 보통교육 전후 단계의 교육인 취학전 교육과 고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유치원에 관한 회의(Assises de la maternelle)’ 연설에서 현재 6세인 의무교육 개시 연령을 3세로 낮추는 정책을 2019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그 후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모든 자녀가 유치원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정책목표가 있다.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을 포함하여 OECD 가맹국 36개국 중 16개의 유럽 국가에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 무상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주내의 주립대학과 시립대학 무상화 정책을 2017년에 도입하였다. 종전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 무상화는 일부 주 및 지역에서 실시하여 왔지만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정책은 최초인데 연수입이 125,000 USD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미시건대학도 2018년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가정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시사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그리고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쇄된다. 교육의 기회격차와 사회경제적 격차는 상관관계가 크므로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세대 간의 사회계층 재생산을 단절하여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교육은 공공재로서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준다. 개인에게는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경제적 이익과 결혼, 건강, 육아, 여가 등의 비경제적 이익을 준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범죄감소, 환경보호, 높은 시민정신 등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의 99.7%(2018년)가 진학을 하고 있어 국민적 교육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만 5천 명이 가까운 전국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도 적지 않다. 게다가 고교를 졸업하였지만 ‘무직자 및 미상’인 비율도 20.74%(2018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고교 교육실정을 직시하고 아울러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교육이 개인 및 국가·사회에 미치는 이익, 외국의 의무교육제도 개혁 및 교육비 정책 동향 등이 시사하는 바는 고교 무상교육이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닌 당연한 긴급과제임을 알 수 있다. ②

경기 이의초등학교 '세종도서관' 과학과 그림책이 만났다고?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학교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책 읽는 '즐거움'에 '시원함'과 '반가움'이 더해져 일석삼조다. 7월 30~31일 이의초등학교(교장 김재현) 세종도서관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과학, 그림책과 마주보다'라는 특강이 마련됐다. 책과 과학의 만남으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즐기는 과학실험에 푹 빠져들었다. 책 읽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의초등학교 세종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자.



1

12 세종도서관에서 준비한 여름방학 특강 '과학, 그림책과 마주보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2

여름방학이지만, 복층으로 이뤄진 2층 세종도서관(미디어실)에 20여 명의 4~5학년생들이 모여들었다. 오늘은 '과학, 그림책과 마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여름방학 특강의 첫날. 에르디아(ERDIA, 비경쟁토론)의 이향근 강사는 그림책 <머리하는 날>(사계절)과 연계하여 '이황화결합' 실험을 준비했다.

'과학, 그림책과 마주보다'

처음으로 머리를 하는 아이에게 미용실은 어떤 공간일까?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공간일 것이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은 여자 아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미용실에 들어서는데, 머리하는 과정도 편안하지 않다. 아이는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하고 생일 파티에 간다. 생일 파티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뽀글뽀글 폭탄이래요?"라고 놀림을 당하던 남자 아이. 그 애와 똑같은 머리를 하고 한껏 꾸민 모습에서 간질간질한 마음도 잊볼 수 있다.

<머리하는 날>을 함께 읽은 이의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파마가 어떻게 됐을지 '기대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올 친구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에, 폭탄 머리를 한 남녀 주인공의 볼이 빨개진 장면에서는 '사랑 가득한 마음'을 짐작해 본다. 사춘기의 문턱에서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아이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이다. 이향근 강사는 사춘기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에 파

마의 원리가 담긴 '이황화결합'을 과학실험으로 가져왔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 파마의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① 머리카락에 파마약(환원제)을 바른다. 이때 약품 내 수소와 반응하여 이황화결합이 끊어진다. ② 좀 더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모양을 잡아주고 열을 가한다(결합). ③ 바뀐 형태를 고정하고 과산화수소나 산화제로 수소를 제거하면 다시 이황화결합이 생긴다. '이황화결합'은 녹말용액, 비타민C용액, 요오드요오드화칼륨을 이용한 '산화·환원 실험'을 통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물에 요오드요오드화칼륨(2ml)을 넣으면 황색으로, 다시 녹말용액(2ml)을 넣으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때 다시 비타민C용액(10ml)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는데, 이는 요오드요오드화칼륨이 녹말보다 비타민C와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책 수업은 처음이라는 송정민(5학년) 학생은 "실험을 하면서 파마의 원리를 조금은 알게 됐고, 물의 색이 변하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라고 했으며, 김민재(4학년) 학생은 "머리카락이 단백질 한 가닥으로 이뤄진 줄 알았는데, 여러 가닥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7월 31일에는 <부엌칼의 최대 위기>라는 책을 읽고 패스트푸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강사는 "고불거리는 면의 탄성력을 실험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전교생이 책 읽는 즐거움에 빠졌다

경기도 광고 신도시에 위치한 이의초교는 45학급의 전교생 1,2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학교다. 장서구입에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도서관 운영비로 연간 1천만 원을 집행할 만큼 학교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김재현 교장은 “책 읽기 활동은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의적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의초는 모두가 참여하는 기본에 충실한 독서교육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 아침 전교생, 전교사가 참여하는 ‘훈민정독 아침독서’가 그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으면서 꾸준한 독서습관을 통해 평생 책 읽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어머니’와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 독서동아리는 독서 입문기에 있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

거움’을 일깨워 준다. 이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책을 읽는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학부모가 들려주는 구연동화, 언니 오빠가 들려주는 구연동화에 흠뻑 빠져드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심선희 사서는 “25~30명의 어머니들이 독서모임을 통해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책을 잘 읽는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구연동화 독서토론을 해오고 있다.”라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학교도서관은 교과연계 수업을 지원하는 곳

심선희 사서는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교과연계 수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을 꼽는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때문에 도서관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부분은 교과연계 수업 지원이다. 심 사서는 “진로수업 외에도 도감을 활용한 과학수업이나 미술

에 관한 수업 등 도서관에 요청하는 수업자료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며 “수업 일주일 전에 각 학급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최대한 수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의초는 교과연계 독서수업의 활성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단위(8차시)를 기본으로 질 높은 독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기초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푸른 사자 와니니>의 저자 이현 작가(4학년 대상)와 <서찰을 전하는 아이> 저자 한윤섭 작가(6학생 대상)를 초청,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동화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책 속에 담긴 역사적인 이야기(동학, 조선의 보부상, 녹두장군) 등을 저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전 읽기’로 책 속에 ‘풍덩’ 빠지는 날

이해인 시인은 ‘좋은 책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옆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한다.’라고 했다. 학기 중에 이뤄지는 이의초의 ‘고전 읽기’가 그렇다. 지혜나무 ‘고전 읽기’ 인문학 동아리 5~6학년 생 20여 명은 아침독서 자투리 시간에 오롯이 고전과 마주한다. 4년째 이어오는 동안 <로빈슨 크루소>,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박씨전>, <어린왕자>, <쉽게 읽는 백범 일지>, <사룻의 거미줄>, <난중일기>, <채근담>, <갈매기의 꿈> 등 다양한 인문고전과 만나왔다.

심선희 사서는 “천천히 읽다 보니 1년에 3~4권 읽는 수준이지만, 함께 모여 낭독함으로써 옛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책읽기를 생활화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작자 미상의 조선시대 소설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여성

을 주인공으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박씨전>을 함께 읽은 학생들의 소감은 어떨까? 이주연(5학년) 학생은 ‘책의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다. 대부분은 옛날 책은 남자가 잘난 것을 뽐내는데,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고 기록했으며, 이유경(5학년) 학생은 ‘책의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몇몇 어려운 낱말은 해석이 나와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박 씨가 처음에는 가여웠지만 허물을 벗고 나니 잘 산 거 같아 보기 좋았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의 외모지상주의는 요즘과 다름없어 보인다.’라고 적었다. 아침 자투리 시간에 천천히 낭독하다 보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은 18장 남짓하지만 아이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침에! 모두가! 날마다! 그냥 읽기만 했는데, 어느덧 책은 소중한 벗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다. ㉠

3 학부모와 함께하는 책 놀이
4 한윤섭 작가와의 만남
5 지혜나무 ‘고전 읽기’
6 <머리하는 날>을 읽고 발표하는 아이
7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

김문섭 강원 사북고등학교 교사 “폐광촌 아이들과 함께 꿈을 그려갑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문섭 교사

탄광의 부흥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 교육자로서의 삶. 열정 하나로 만났던 폐광지역 아이들이 그 시절 그를 스승으로 이끌었다. 밤 10시까지 아이들 가르치길 마다하지 않고 집까지 태워주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는 교사.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 주인공인 김문섭 강원 사북고 교사를 만났다.

이르면 오는 12월 강원 사북고 학생들이 주도한 탄광테마 카페가 문을 연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지로 뿔뿔 뭉친 아이들이 이룬 쾌거다. 연탄빵, 열차빙수 등 제품 연구부터 기념품,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지난 2017년 강원랜드 주최로 열린 폐광 지역 사회적 경제 창업대회에서 청소년 최초로 최종 선정되며 이뤄낸 결과다.

“열차 분위기를 조성한 내부 인테리어, 사북 탄광 감성 사진을 담은 포토 엽서, 곡괭이 병따개 등은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러한 활동과 연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련 진로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요.”

김문섭 사북고 지도교사는 아이들의 든든한 조력자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진로지도로 이끈다. 올해 교육부와 교직원공제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스승상(근정포장)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에 힘을 쏟은 그에게 수여됐다. 20여 년의 교직생활 대부분을 고3 담임과 대입진학부장을 해 온 그는 “진로 교육은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꿈을 만드는 진로·진학지도

“학생들은 꿈을 찾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요. 만약,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부분이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근무지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주로 사교육 도움을 받기 힘든 군 단위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한 터라 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욱 막중했다.

사북고 아이들과는 탄광테마카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적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강원도 정선의 인구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한때 6만 명을 넘어섰던 정선 사북면의 인구는 4,000여 명. 아이들은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정선군 가상군민이 되면, 정선 명예군민 및 지역 내 다양한 시설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정선군 인구정책과에 제안했다.

자연과정 학생들과는 지역의 특산품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상품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다채롭게 진행한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옥수수 추출물을 이용한 구강청결제, 개똥쫂을 이용한 입욕제, 천연색소를 이용한 립스틱과 립팝도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제23회 전국 과학동아리발표대회 금상, 2018 STEAM R&E 우수상 등 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산간벽지의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대도시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겨뤄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많은 자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지요.”

그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 대상 진학지도와 학생 생활상담을 100시간 이상 해오고 있다. 또한, 연간 10회 이상 대학초청 입시설명회, 학교 자체 입학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 체계화된 진학지도 프로그램 및 상담으로 그에 대한 학교 안팎의 신뢰가 두텁다.



12 여름방학 과학실험 프로젝트 수업 참여 학생들(좌)과 지도 모습(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된 과학 수업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김 교사는 꿈에 그리던 아이들과 만났지만 교단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학에서 배운 교수·학습 이론은 고교 수업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과학에 대해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줄곧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고 깨워도 멍하니 앉아 있기 일쑤였다.

“김화 와수리라는 북한과 맞닿은 지역의 공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였죠. 대다수 학생이 늦은 새벽까지 지역의 식당 등에서 배달과 서빙 일을 하곤 했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자거나 장난을 치며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어쩌면 지금이 과학과 만날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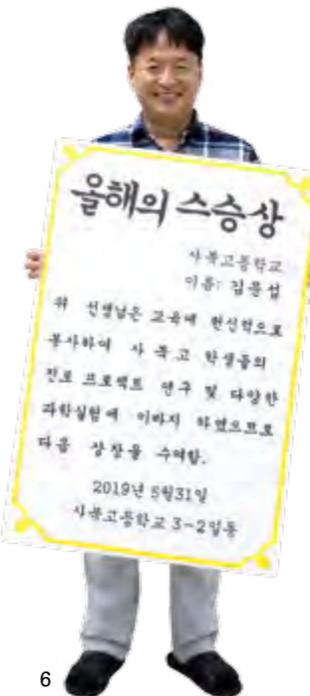
그는 다양한 실험과 체험중심 활동을 수업 안으로 들여왔다. 매 과학 시간 과학실에서는 과학마술을 통한 마술사 되어 보기, 버블아티스트 되어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

교 인근 논과 개울을 거닐며 우리 지역 식물, 동물 이름을 외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아침 9시부터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건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라는 그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근무지마다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 활동과 탐구동아리를 병행하며 아이들의 과학적 흥미를 이끌었다. 강원과학고 최초로 로봇동아리를 운영하는가 하면, 신철원고, 철원고에서는 창의·인성 신장 프로그램과 탐구 동아리를 다채롭게 운영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무료하게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다양한 실험과 체험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창의·인성 수업으로, 융합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더군요.”

그는 여전히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교수·학습 개선과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유튜브



- 3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김문섭 교사와 사북고 학생들
- 4 가장 듣기 좋은 첼로 소리를 찾기 위해 여름방학 과학실험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과 실험을 돕는 김 교사
- 5 탄광테마카페 브랜드를 설명하는 사북고 학생
- 6 대한민국 스승상을 축하하며 담임반 학생들이 수여한 상장

를 활용한 수업자료나 지역과학자원지도(RSM) 등을 개발하는 등 교육자료 개발·적용에도 누구보다 열심이다. 2011년부터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교사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하며 동료들과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

가르침의 기쁨을 일깨운 교육봉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북고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부임한 그의 첫 발령지다. 부임 첫해인 2001년 그는 한 달간 말썽을 피운 학생들과 함께 음성 꽃동네를 찾아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폐광으로 인해 가정 문제를 갖고 있던 학생들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삶의 태도가 변화했고, 그 이후부터 봉사활동은 그에게 또 다른 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수업도 진행했다. 강원과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와 함께 매년 ‘과학썩잔치’ 행사를 열고 1,000여 명 이상의 지역 초·중등 학생들과 만났다. 특히 2016년부터는 프놈펜과 캄퐁툼 등 캄보디아 학생을 위한 STEAM 캠프를 열면서 교육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들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갈구와 애정이 아이들 눈에 그대로 드러나요.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봉사가 아닌 힐링이라고 말하는 이유지요.”

2017년부터는 태백, 정선 지역의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체험 과학캠프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강원 지역 교사 20명과 함께 봉사단체인 한국미래융합교육협회를 설립하고, 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보다 체계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서 뭐든 하려고 했던, 교단에 처음 섰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밤 10시까지 열정 하나로 가르쳤던 그 마음을 모든 일에 바로미터로 삼고 있어요. 처음처럼요!”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수학으로 세상풀기’ 생활 속 문제, ‘수학’에 노크하다

2019년 8월 7~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가 열렸다. 수업콘서트는 중학교 자유학기의 수업 사례를 나누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4회째 열렸다. 장유영(울산 진장중학교) 교사는 2019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의 교과 입상자로서 8월 7일 전국에서 모인 교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수학으로 세상풀기’를 주제로 그동안 교실수업 노하우를 공개했다. 장유영 교사와 함께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을 배워보자.

123456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현장.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사례를 나누기 위해 전국의 교원이 모였다. 이날 장유영 교사(사진 2)가 ‘수학으로 세상풀기’를 주제로 수업 노하우를 공개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과목이 바로 수학과, 많은 학생들이 입시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교사의 욕심을 더해 학생들에게 자유학년제를 맞이하여 수학은 단순한 지식과 기능만을 습득하는 학문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세상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수업의 소재를 학생의 생활에서 찾기로 하였고, 그 소재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다.

사례1

정수와 유리수 단원 프로젝트 ‘최저임금 1만 원, 찬반토론’

- 2013년 vs 현재 물가 비교하기: 양, 음의 부호를 활용하여 13년과 현재 생필품 가격 비교하기
- 2013년, 현재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정수의 덧셈, 뺄셈을 통해 2013년과 현재의 생필품 가격과 최저임금으로 주말 살아보기
- 최저임금 1만 원, 찬반 의견 내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적어보기
- 최저임금 1만 원, 찬반 토론: 최저임금 1만 원 찬반토론 및 동료평가

작년 3월,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와 논평이 쏟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머지않은 미래와 관련이 있지만 학교와 사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어른들의 주제라고만 생각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들의 의견으로 토론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낄 것이라 기대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찬반토론’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학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재와 2013년도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여 물가 상승과 하락을 양과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표로 나타내게 하였다.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한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생필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여 현재와 5년 전의 생활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네 반의 토론 결과는 달랐지만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팀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자신의 근거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 둘째는 같은 내용이라도 숫자로 표현한 자료에 청중들이 더 귀담아 들었다는 것, 셋째는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잘 제기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를 자신이 직접 토론해 본다는 것에 뿌듯해 했으며 자신과 친구들의 토론 실력에 놀라워했다. 이 수업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토론과 설득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례2.

일차방정식 단원 프로젝트
'여름, 전기세가 무서워'

- 하루 에어컨 소비전력, 전기세 문자로 표현하기: 하루 에어컨 소비전력을 조사하고 전기세를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 전기세 10만 원이면 에어컨 몇 시간 사용가능할까?: 한 달 전기세 10만 원이면, 하루 에어컨 몇 시간 사용가능한지를 방정식을 통해 해결하기
- 전기세 포스터 만들기 및 발표하기: 가정용품의 소비전력을 조사하여 4인 가족의 전기세를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기, 한 달의 전기세와 전기세 절약법에 대해 발표하기

작년 7월, 무더운 여름 학생들의 관심사는 에어컨이었기에 '전기세 폭탄 될까 폭염에 일선학교 냉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한 통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며 '일차방정식' 단원을 시작하였다. 소비전력과 전기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고 하루 시간 에어컨을 가동하였을 때, 소비전력과 그에 따른 전기세(누진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계산해보았다.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간의 에어컨 가동시간을 대입하여 전기세를 계산하였다.

일차방정식을 배운 후에는 작년 6월의 전기세를 이용하여 하루 에어컨 가동시간을 구하여 작년과 올해 에어컨 가동시간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모두 마친 후, 모둠별로 가정에서의 전기세 계산(누진세 적용)과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막연하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전기세를 계산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학교에서의 전기세 계산만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가 가정의 전기세도 계산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업 마지막에 모둠 활동을 추가하였다. 생각 외로 전자제품의 소비전력이 쉽게 찾지지 않고 단위가 작아 전기세 계산에 고생은 하였지만, 수학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직접 방정식을 세우고 해를 찾았을 때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례3.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 프로젝트
'그래프로 나의 마음 표현하기'

- 좌표활용 보드게임 SET: 좌표평면 위에 펼쳐진 카드를 좌표로 호명하여 SET 완성하기
- 나의 마음과 좌표: 자신이 주로 하는 일을 흥미와 성취도를 각각 축으로 두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하기
- 정비례그래프와 퍼즐버블: 그래프를 통해 퍼즐버블 게임 해결하기
- 그래프 해석하여 아나운서 대본 작성하기: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상황을 창의적으로 상상하여 아나운서 대본 작성하기
- 나의 마음과 그래프: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제로 표, 그래프로 표현하고 해석하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학적 관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단순히 거리와 속력 간의 관계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을 좌표평면, 관계식, 표,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며 수학의 유용성과 표현력을 기르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좌표와 그래프를 통해 게임을 해결하도록 했다. 좌표평면 위에 보드게임 'SET'을 펼쳐놓고 좌표를 활용하여 카드를 호명하도록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좌표평면의 유용성을 알도록 하였고, 그 후에 자신이 주로 하는 일들을 흥미와 성취도를 x축, y축으로 두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 오락실 게임 '퍼즐버블'에서도 정비례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게임을 해결하도록 하며, 그래프를 그리는 법과 그래프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임을 알도록 하였다. 정비례 및 일반적인 그래프 해석까지 모두 습득한 후에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하나를 선정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 그래프, 가능하면 관계식까지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으로 게임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좌표와 그래프를 찾으며 유용성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학생들은 의외로 솔직하게 표현하여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게 되어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학생들의 다양한 역할을 한눈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에겐 많은 변화도 있었다. 매 단원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간단히 담아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할 때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는데, 단원마다 보냈던 가정통신문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에 대한 응원으로 돌아왔다. 그 응원들이 1학기에서 그만둘까 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지속하게 했고, 현재에도 새로운 시도에 있어 많은 힘이 되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보통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눈에 띄는 반면에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토론, 비주얼 씽킹, 글짓기, 발표 등 각 분야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달랐다. 이는 학생들을 보는 교사의 관점을 바꿔냈고 학생들 역시도 수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사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재미있는 수업은 항상 흥미 있는 수업이라 할 수 없지만, 흥미 있는 수업은 재미있는 수업이고 학생들의 흥미는 교과와 생활이 연결되었을 때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와 생활을 연결하고자 노력하며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수학에 흥미를 갖고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78 좌표와 그래프를 통해 게임을 즐기듯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들 (지난해 지도학생들 모습임)

국립중앙과학관 ‘2019 항공우주특별전’ 올 여름 바캉스는 ‘과학’과 함께



2019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포스터

먼 옛날부터 하늘은 인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대관절 무슨 연유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끔씩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이는 우주도 마찬가지. 인류는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를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각종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호기심을 가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달에 토끼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탐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인류의 본능이자, 과학 발전을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달착륙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2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 항공우주특별전’은 우주에 대한 이러한 호기심을 잔뜩 불러일으키는 멋진 자리다. 아폴로 17호가 실제 달에서 가져온 월석(月石)에서부터 누리호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75톤급 로켓 엔진까지, 항공우주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구경거리가 가득하다.

각종 전시물 통해 항공우주과학 묘미 만끽

행사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날개를 자랑하는 고고도 스마트 무인기와 한국형발사체(나로호) 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배치된 각종 전시물은 행사의 전체적인 균형을 적절히 맞춰주고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이모저모, 각종 인공위성의 역사와 역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스마트 무인기 등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다양한 전시는 평소 관련 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지곡초등학교 송연진 학생(5학년)은 “평소 항공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전시를 자주 관람하곤 한다.”라며 “이번 전시로 특히 우주선과 인공위성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드론 농구, 탐사 로버 조종으로 오감 만족

전시물을 통해 각종 항공우주과학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각종 체험을 통해 하늘과 우주를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동그란 보호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조종해 골대에 집어넣고, 화성 탐사 로버를 직접 조종해보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돼 있다. 우주에 관한 상상화를 그려 배지로 만들거나, 우리말로 된 달의 지명을 적어보는 등 다양한 이벤트 역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초등학생이 된다는 김동연 군은 “말로만 들어본 드론을 조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다.”라며 “사실 항공기나 로켓 같은 과학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분야였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많은 흥미가 생겼다. 당장 내일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빌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문화 행사로 의외의 적성 찾아보자

이렇게 잘 준비된 과학문화 행사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을 과학의 즐거움에 푹 빠지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 준비된 다양한 과학문화행사는 송연진 학생, 김동연 군과 같은 과학 꿈나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7~8월 동안 전국의 과학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2개 기관에서 174개의 과학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나에게 맞는 행사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과학문화행사 정보를 동(同), 고(考), 동(動), 락(樂)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분류,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사이트(www.2019scienc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중 동(同)은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전시·공연’ 행사, 고(考)는 과학으로 생각하고 배우면서 즐기는 ‘강연’ 프로그램, 동(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즐길 수 있는 ‘견학·체험’ 프로그램, 락(樂)은 청소년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프·연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역시 이번 특별전 외에 ‘2019 한여름 밤 과학관은 살아있다’, ‘베틀의 과학여행’, ‘무한상상실 창의공방 여름방학교실’ 등 다양한 여름맛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혹시,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피서는 각종 과학문화 행사와 함께 보내는 ‘싸캉스(Science+Vacance)’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외의 과학 본능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

2019 항공우주특별전

주제 : 하늘과 우주에서 찾는 미래
기간 : 2019년 7월 2일~9월 1일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 무료
주최/주관 :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중력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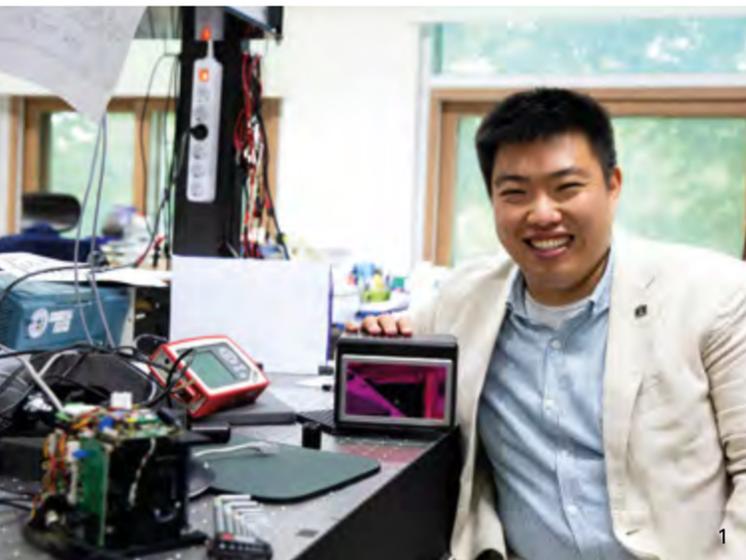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모형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의 모습

정지성 (주)에스오에스랩 대표

자율주행 핵심기술 ‘라이다’ 개발 창업 3년 만에 혁신 아이콘 기업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다. 현재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는 해상도가 낮고 주변이 어두울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라이다 센서는 차량 전방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에스오에스랩은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로 레이저 하나만으로 고해상도를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여타 업체와의 차별점이다. 기존 모터 스캐너 형태와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미러 스캐너를 결합해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췄다.

정 대표는 “라이다 센서를 어떻게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라이다 회사 중 아직 뚜렷한 선도기업이 없어서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에스오에스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68억 투자 유치 성공...하반기 제품 양산

에스오에스랩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 곳에 사무실을 두며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총 직원은 42명으로 대부분이 연구인력이며 이 중 10명은 박사급이다. 지난해에는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고 68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사업 초기부터 이뤄낸 굵직한 성과들 덕분에 별다른 어

“창업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업은 남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죠.”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개발업체 (주)에스오에스랩. 이곳을 이끄는 정지성 대표는 3년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전공학부 박사과정 중 동료 연구원 3명과 함께 창업에 도전했다. 학교 창업진흥센터(GTI)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CEO 챌린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한 것이 계기였다. 정 대표는 연구실 밖으로 나가 창업 교육을 받고 사업 검증 과정을 거치며 라이다 기술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창업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이었다.

려움 없이 성공 가도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사업이 그렇듯 정 대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지난해 8월 투자금 유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회사 이사진들이 직접 개인 대출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정 대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가 혼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고마운 경험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업 과정에서도 ‘팀 빌딩(Team building)’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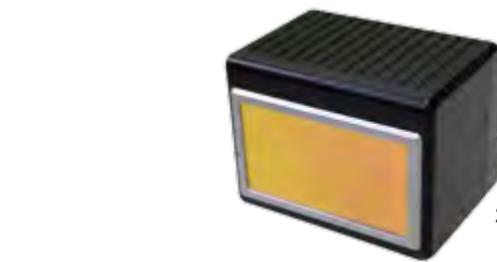
“내가 어떤 역할에 적합한 사람인지 성향을 파악한 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 팀을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투자할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팀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죠.”

학창시절 내성적이었던 정 대표는 대학(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에 와서 상담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로봇동아리에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리더로서의 역할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그는 “혼자 하면 밤을 새웠을 일이 팀을 만들어 분담하니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여러 사람을 모아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기술도 사람이 만드는 것...‘팀 빌딩’ 중요

평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정 대표는 직원 한명 한명의 ‘맞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는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각자 중요시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최대한 맞춰줬을 때 결과적으로 최상의 능력을 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가 직원 개개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다.

그에게 창업이란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효과적이고 신나면서 위험한 방법”이다. 특히 ‘위험한’을 강조한



12 정지성 대표가 손에 쥐고 있는 라이다 제품은 에스오에스랩이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식’을 활용했다.

34 에스오에스랩을 이끄는 직원들. 정 대표는 좋은 팀원을 구축하는 데서 스타트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뛰어드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준비와 목적의식 없는 창업에 대해 경계했다.

취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미래 세대에게 정 대표는 “무작정 대기업, 혹은 공무원을 목표로 한 후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어떤 방향이든 본인이 원하는 길인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인턴 경험도 쌓길 바란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②

글_ 김진원 명예기자

화성노진초, 배움과 삶의 일치 '기부'로 실현



“애들아~ 팔색조 지키기 환경운동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부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잘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

“와~ 정말 뿌듯하다~”

6월 한 달간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공부했다. ‘환경이란 ~이다’라는 주제로 협동하여 글쓰기도 진행했고, 우리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진행해보았다. 깨끗한 환경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할 일들이 있을지 이야기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포스터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기부를 통해 버섯을 직접 길러보기도 하였으며, 천연 염색에 대하여 배우고 실제로 손수건을 염색해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기부’라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모은 돈은 약 22만 원, 그중에서 7월 학급 생일파티를 진행하고 남은 돈 15만 원을 어디에 기부해야 할지 학급회의가 시작되었다. 그중 멸종위기 동물들로 학생들

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근 거제도에서 대규모 골프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졌고, 100만 평 규모의 골프장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개발 예정지역을 둘러본 결과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두견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보고된 적 없는 동물들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 활동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태계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었고, 학생들은 팔색조를 지키자는 마음에 이곳에 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팔색조야 기부한 만큼 건강하게 살아야 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번식 성공해서 노진초등학교에 놀러와!”

학생들에게는 환경을 주제로 공부한 뒤 진행한 기부였기에 배움과 실천이 연결되었고, 교사인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로서의 내 수업이 학생의 삶과 실천이 연결되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겠다.

글_ 김형섭 명예기자

요즘 아이들, 황금빛 인성으로 물들이는 방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합숙 과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255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연수관에서 ‘2019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본 연수는 기본 소양, 인문 소양, 역량 영역으로 나누어 프로젝트, 교육연극, 토의토론, MS팀즈 활용과 놀이(게임) 활용, 비주얼 씽킹 등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은 희망과 수요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하였다.

인성교육 지도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정소라 경북 김천여중 교사는 ‘황금빛 인성으로 물들이는 수학 교실’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다.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수학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비롯한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느낀 점을 통해 인성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담아 학생들의 인성적 성장을 파악했다고 하였다.

본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연수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매우 고마웠다. 연수한 내용을 하나 하나 다시 정리하여 내가 맡은 학생들의 황금빛 인성 짙어지도록 지도하겠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과 생활로 미래의 바른 역군으로 잘 자라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

글_ 박경은 명예기자

우리 좀 놀면 안 돼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순천조례초등학교(교장 유승재)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내 방과후교실 또는 학원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

리고 있는 학생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순천조례초에서는 어린이들의 충분한 휴식 및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중간놀이 시간을 매일 10:30~11:00까지 30분간 운영하고 있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장소 제공은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현관 바로 앞 구령대도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인기 있는 곳이다. 중간놀이 시간을 이용해 1인 1스포츠를 모여서 하고, 요일을 정해 학년별 스포츠클럽 활동도 한다. 2학기 중에는 전통놀이 시설을 설치해 업그레이드된 놀이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_ 이명주 명예기자

미래의 리더, 사고하고 표현하라! 해커톤 멘토링 캠프 개최



2019 SW창의융합 동아리 해커톤 멘토링 서부권 캠프가 지난 7월 1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태고, 목포마리아회고, 헤인여고, 목포제일여고, 중마고, 광양제철고, 덕인고, 능주고, 남악고 등 9개 학교에서 학생 45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태고 박호림 교사, 목포마리아회고 주현웅 교사, 순천금

당중 양석재 교사의 전문강의와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캠프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캠프의 주제는 '미래의 리더, 사고하고 표현하라'로 SW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과 팀워크로 해결하며, 문제해결의 사고과정을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학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SAFETY BUMPER, 최적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화장실, 특정 조건에만 작동되는 MIRACLE WINDOW, 자동 도수 맞춤 안경, 자동 착석확인 교실 시스템, 로드킬 예방도로 등 풍부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이 기대되는 주제들이 주목을 받았다.

글_ 김한나 명예기자

진정한 배움중심수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2019 초등 배움중심수업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는 100여 명의 초등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 남서부 권역 포럼이 열렸다.

첫 순서로 '배움중심수업 10년, 그리고 나아갈 길-기꺼이 배우려는 교사에게'라는 주제로 수원금곡초 최인숙 수석교사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배움중심수업이 걸어온 길과 교육 현장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들,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재정의와 배움중심수업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석교사가 정리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기조 발제 후에는 참석한 교사들이 분임별로 나누어 '내가 생각하는 배움중심수업이란 ~이다'와 '학생주도 수업에 대한 실천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그중 한 분임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이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협력하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며 성장하는 실천'이라고 정리했다. 먼저 '편안한 분위기'란 교사와 학생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요, '삶의 의미'는 배움중심수업의 목적으로 학생에게는 왜 배우는가, 교사에게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하는 실천'이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삶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배운 내용이 실제로 옮겨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움중심수업의 실천방법으로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도록 하는 것, 토론이나 연극 등 학생끼리 협력하는 학습활동, 질문을 통한 수업 의미 찾기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움중심수업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이해자료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글_ 오인선 명예기자

별들에게 물어봐! 신연중의 천문우주과학교실 체험기



신연중학교(교장 류영서) 1~3학년 32명의 학생들이 지난 7월 19일 송암스페이스센터의 일일 천문우주과학교실에 참가해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체험은 평소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후 진행되었다. 스페이스센터 도착 후 첫 번째 순서로 별자리성도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누

워서 천장을 보면 별자리 관련 영상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체험을 했다. 토성실에서는 팀별로 별자리, 행성 등과 관련된 퀴즈가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이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며 진행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 후 입체영상관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본격적으로 별을 관측하러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대로 이동했다. 값비싼 천체 망원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때 쓰이는 천장이 오픈되는 광경을 지켜본 학생들은 모두 "우와~"하고 탄성을 질렀다. 평소에도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본교 2학년 성이루 학생은 "이곳은 처음 왔는데 관심 분야에 대해 생생하게 배우고 질의응답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다. 과학고에 진학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글_ 김경민 명예기자

야구장에서 체험하는 스포츠 진로교육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각 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가득한 야구장에 서울용곡중학교(교장 임영선) 학생들도 힘차게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혁신학교이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용곡중학교 1학년 3반 황경식 담임선생님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LG프로야구단을 찾아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야구에 관련된 다양한 직종을 견학하고 관련 업무를 살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년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황 교사는 이러한 학교 활동을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과 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한다. 외부의 다양한 활동은 스포츠 참여와 문화체험 기회로 진정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밝고 건전한 학교생활과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



유아 눈높이에서 ‘놀이’로 배우는 즐거움 「2019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놀이’ 통한 즐거운 배움 강조 ‘교사중심→유아중심’ 영역별 ‘369개→59개’로 연령 통합·간략화해 교사 지원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배경은 어떠한가?

2012년 3월에 도입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월에는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들은 공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의 필요성 및 과다한 연령별 교육 내용과 현장 적용의 확실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50번으로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여 2017년 12월 27일 출발선 평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명시하였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2018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연구책임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임부연 교수)을 구성하여 연구하였으며, 전국토론회·설명회(3회), 현장포럼(5회), 현장 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 등을 거쳐 현장의견 수렴 후, 누리과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공청회,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19.7.24)에 이르게 되었다<표 참조>.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기

누리과정은 2012년 누리과정 제정 시 유아교육계와 보육의 이해 상충으로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지 못했으며 성격, 인간상을 규정짓지 못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위상과 체계를 명확히 갖추어 성격과 인간상을 신설하고, ‘공통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밝힌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

【표】 현행 누리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현행 누리과정	개선 방향
구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준비교육 위주의 학습 • 유아 개개인의 특성 반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최소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위주의 교사 주도적 교육 • 구조화된 놀이학습 위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주도적·자발적 놀이 권장 ▶ 놀이 관찰과 기록, 교사-유아와의 질적 상호작용 등 강조
구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복잡한 구성(5개영역-주제-소주제-단위활동)으로 현장의 자율적 구성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부 내용 삭제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명시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인간상과 연계하여 유·초 연계 발판을 공고히 하고, 이중 ‘건강한 사람’은 초·중등에 없는 유아에게 적합한 인간상을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공고히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유능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학습자가 실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도 이러한 국내외 교육과정의 동향을 반영하여 연령별로 과도한 내용을 줄이고 유아가 중심이 되고 즐거운 배움으로서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제정 이후 유아들의 일상과 놀이에서 출발하여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교육과정의 학문적 용어로 정리하여야 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 이제 누리과정은 과거 노력의 힘을 바탕으로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을 국가수준에서 통합하여 나아가는 성과를 이루었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보다 교육 내용에 집중하여 미래의 능력들, 학습자 중심의 배움, 즐겁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과도한 5개 영역의 내용을 줄이고, 학습자로서 유아를 새롭게 이해하고, 유

아들이 주도해 가는 놀이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 취지인 것이다.

유아중심 놀이중심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이 느끼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 누리과정의 가치이다. 교사용 지도서의 단위 활동 계획안은 초임교사 등 교사가 수월하게 유아들과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고 시작해야 할 수 있는지를 가름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활동계획안은 교사의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일교육계획안을 4장까지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계획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론-실천이 분리되기도 한다. 또한 현장 교사는 이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런 과도한 업무 상황을 개선해 가고자 한다. 계획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유아’와 ‘놀이’를 더 담고, 실제 유아가 놀이하고 교사가 지원한 실천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과정의 실제이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유아의 놀이를 잘 바라보고, 귀기울이기, 도움이 필요한지 내일은 또 무엇을 지원해주고 함께 놀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때이고 교사들이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의 놀이실행력과 책무성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위하여 교사가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하며 이는 ‘교사중심’에서 ‘유아중심으로 옮겨가는 교수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정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영역별 내용을 369개에서 59개로 연령 통합하고 간략화 하여 교사의 실행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①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략화 된 5개 영역을 보다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한다. ②지식의 양을 줄이고 실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국내·외 역량중심 교육과정 동향

을 반영하여 놀이 중심 배움의 실재를 지원한다. ③간략화된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재 교사용 지도서에 의한 교사중심의 경직된 실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한다. ④상상력, 즐거움, 감성과 느낌 등 미래 역량을 포함하는 용어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간략화를 통하여 ‘미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명시하여 이는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일상과 삶, 발달과 놀이를 아우르는 총체적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누리과정을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미리 짜여진 계획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권과 책무성이며, 교사가 고민할 시간과 이를 실행해 가도록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안, 월안, 주안, 일안의 교육계획 수립에서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여 한 가지 양식을 의무화하기보다 각 기관의 실정과 철학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의 양식이나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열어 놓고자 하였다. 평가는 국내·외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기관 수준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계획하여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평가 자료는 유아교육 기관과 교실 맥락에 따라 일상과 관련된 평가나 평소 교사가 자유롭게 작성한 계획안이나 놀이 실행 및 기록에 대한 자료를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찾고자 하였다.

유아의 놀이 예(모래 구덩이를 뛰어 넘는 지안이)



유아는 선천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움직임은 기쁨과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충분한 움직임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사는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된다.

개정 누리과정 후속지원과 과제는 무엇인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며, 현장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해설서 등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해설서는 개정 누리과정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사용 안내서의 성격이며, 고시문 해설과 5개 영역 이론과 실천 내용을 해설한다. 놀이이해자료는 놀이 철학 및 사례를 통하여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 놀이와 배움의 관계를 유아의 놀이 여정을 통해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놀이실행자료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공간, 시간, 자료, 관계, 문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교사와 관리자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교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성과 보편성 검증은 통해 현장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시범 연구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운영(19.3.~202.)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현장 지원자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놀이중심 및 유아중심을 잘 실천할 좋은 사례들을 공모하여 「5종의 놀이운영 사례집」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교사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 중인 ‘누리집’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컨설팅단을 양성하여 현장을 지원한다.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 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실 놀이 공간, 복도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쉬이 있는 공간,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특히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부는 지난 '18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모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등, 그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3년간 학생 1인당 약 48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

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 사람중심 미래교육과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19.4.9)

2.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약 33만 명('18년 기준)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 후, 교육급여 지원 대상·금액 및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18년에는 초등학생 학용품비 항목을 신설하고, 학용품비·부교재비 항목의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19년부터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년에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부교재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0%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 격

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18년 기준 약 71만 명).

[표]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법적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권리성급여)	초·중등교육법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자율 (중위소득 50~60% 이하)
지원 내용 ('19)	(초) 부교재비·학용품비 20만 3천 원 (중·고) 부교재비·학용품비 29만 원 (고)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실비 전액	(초·중·고) 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 (PC, 인터넷 통신비) (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 지원비

3. 국가 차원의 체계적 장학제도 마련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18년부터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중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월 30만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9년부터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속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500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작
'20년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중·고·대학까지 이어지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 등 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우수고 지원 사업('04~'09년, 1,619억 원)',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09~'11년, 806억 원)', '농어



제1회 꿈사다리교육캠프 개최('18.8.16. ~8.18,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9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증서 수여식('19.7.26, 삼육대)

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09~13년, 2,229억 원), 'ICT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13~18년, 360억 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8년부터는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작은 학교끼리의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690개 학교를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해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벽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빈곤 등에 따른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지자체 복지센터



농어촌 학교 교육특색프로그램

등과 함께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8년을 기준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인력(교육복지사) 1,65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3,596개 학교에서 312,369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6.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18.10월)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취학 전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미응소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끝까지 확인하고 있다.

취학 후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연 5회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소재·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정보 연계로 위기가정 아동 발굴·지원에 협력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모든 아이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나고, 가정형편·지역·계층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가 본인이 가진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복지정책과의 바람이다. 2



'1학생 1스포츠'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뉴스포츠로 흥미 높이고 체육관 건립 지원해 환경 개선



패널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김광일 대구 가창초등학교 교사
	장대건 강원 함태중학교 교사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8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전인교육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서 신체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적절한 체육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기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학생탈의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학교체육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체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교원과 정책담당자가 만났다.



이순이 — 신진용 — 김광일 — 장대건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방안

사회 안녕하세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 정책담당자와 각급 학교에서 학교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전인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주요 선진국에서도 학교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 3~6학년은 주당 3시간씩, 중학교는 3년간 272시간, 고등학교는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광일 초등1, 2학년은 체육교과가 없고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 신체활동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해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교무 업무가 많은 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업 충실도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체육교과 지도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연수나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교재, 동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작도전, 기록도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체육전담교사가 지도하고, 건강이나 경쟁 영역은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육수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건 그래도 과거의 체육수업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되면서 육상, 체조 같은 전통종목 중심 수업에서 최근에는 개인차가 적고 흥미 위주의 종목이 많이 개발되고 보편화됐죠.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요. 다만 교육과정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을 체육교사 대신 스포츠강사가 많이 맡고 있는데, 교사수급 문제를 개선한다면 수업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육교사가 학교운동부 감독직까지 겸하기 때문에 잦은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 지도자 및 학생선수 관리 등의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남학생들보다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운동에 흥미가 부족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도 또한 낮은 편입니다.

신진용 먼저 초등 1, 2학년 때에 체육교과가 따로 없어서 신체활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로 전반적인 사고를 넓히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부에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교 1체육전담교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체 초등학교의 84.5%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어요(19년 기준 5,032명). 스포츠강사 또한 초등학교에 1,914명(19년 기준), 중학교에 6,218명(18년 기준) 배치하고 있고, 이들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사·도교육청과 계속 논의 중입니다.

사회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이 확대되고 학교리그, 지역리그, 전국대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을 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광일 저는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부를 맡고 있어요. 지난 6월에 학생들이 교육지원청 대회 예선전에 참가했는데,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학교스포츠클럽 정신도 느꼈습니다. 다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1학기 중 교육지원청 대회 또는 2학기 초 종목별 시·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 진출팀을 선발합니다. 전국대회 일정에 맞춰 시·도대회가 열리다 보니 전국대회 진출팀을 선발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사·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 자율적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학교 간 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스포츠클럽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규모학교와 대규모학교의 경기 결과는 대부분 대규모학교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이지만 참여 학생들의 성취 욕구 충족도 중요합니다.

장대건 학생 본인이 종목을 즐기면서 그 활동이 성인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반을 4년째 지도하고 있는데요, 뉴스포츠 종목이 운동기능보다 협동심,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합을 뛰는 것 말고도 친구들과 추억을 쌓은 경험들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은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을 학교를 뺀 '스포츠클럽'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만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엘리트 종목과 스포츠클럽의 경계를 허물고 스포츠클럽을 일반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신진용 우리나라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지난 2008년부터 전국단위 대회가 열리면서 많이 활성화됐고, 2018년 기준으로 320만 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 내의 체육교과 시수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외연을 확장해 지역스포츠클럽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으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지역 내에서는 취미반과 엘리트반을 나눠 자연스럽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해 시설이용료 22억, 지역 내 리그 운영에 25억, 우수클럽 52억, 전국대회 45억, 마을단위로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200개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학생 수업참여 유도 방안

사회 학교스포츠클럽도 물론 수업의 일부분이지만, 체육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죠. 특히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여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김광일 여학생의 신체활동 기피 현상은 저학년부터 누적되어 온 신체활동 부족과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육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이 되고 처음 체육교과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좋아하게 되는데, 4학년부터는 점차 남녀 차이가 발생하면서 체육교과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

니다. 예를 들어 축구형, 농구형 게임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능차가 커서 함께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키형 게임은 선행경험 비율이 낮아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죠. 남녀 선행경험의 차이가 없는 활동 위주로 신체활동을 구성해야 합니다.

장대건 여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먼저 관심을 이끌어야 합니다.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운동기능이 많이 필요한 전통종목보다는 협동심, 팀워크와 같은 요소가 필요한 킥볼이나 플라잉디스크 같은 뉴스포츠 종목에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팀에 공헌하는 경험을 했을 때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자율 스포츠클럽 동아리를 조직하고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 인근 학교와 교류전, 방학 중 스포츠헤프 등을 통해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조금 더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한 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진용 교육부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은 여학생 SNS 기자단, 찾아가는 심판 아카데미, 여중생 자전거 바르게 타기 캠페인, 스포츠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또, 전국에 지원되는 5,200개의 학교스포츠클럽 중 1,700개 이상은 여학생 클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비율을 늘려야겠죠. 중학생만 돼도 남녀혼성팀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스피닝, 치어리딩, 플로어볼, 킥볼 등 여학생 선호 종목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학생이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35%는 아직 탈의실이 없지만, 최근 정책을 발표한 대로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탈의실이 있는 학교도 활용도가 높은지, 위치·공간구성·보안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에요.

학교 체육시설 환경 구축

사회 체육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날씨의 영향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내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체육수업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요?

장대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4월 말까지도 눈이 오다 보니 야외활동이 많이 제한되는데,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 리듬트레이닝, 스피닝처럼 실내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요. 체육중점학교에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에 개방해서 타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일 최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날은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을 기다려 온 학생들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낮에는 학생이 사용하고, 밤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육관 건립이 어렵다면 교실과 복도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마그네틱 닥트와 투호 장비를 설치하고, 스텝래더를 위한 사다리 그림을 바닥에 그려 놓으면 실내체육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여유교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실내체육활동 교구를 구비해 놓으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학생들이 만족하고 교수·학습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죠.

신진용 현재 전국의 1만 1,000여 개 초·중·고등학교 중 약 83%에 해당하는 9,000여 곳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체육관을 만들고 있어요. 또, 체육관 부지가 없는 학교에는 농구장 크기

의 간이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마저도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교실 2칸 규모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육청 혹은 교육부로 신청해주길 바랍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조차 없는 학교가 총 410곳인데, 현장에 가보면 과밀학급이어서 공간이 없거나 교무실조차 컨테이너에 마련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도 있었어요. 올해 안으로 410곳의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목표고, 그마저도 힘든 곳에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보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1학생 1스포츠를 위한 학교체육

사회 학교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성인이 되어서 적어도 한 가지 스포츠를 꾸준히 하면서 신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장대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체육 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구기종목, 육상종목 등 전통종목을 게임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고, 뉴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같은 요소를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을 체험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심화과정을 거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평생체육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일 1학생 1스포츠 활동은 개인별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습득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종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한 1학기 이상, 가급적이면 1년 정도 지속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니다. 체육수업과 동아리활동 등 교육과정에 녹아들게 하고, 방과 후학교와 토요일포츠타임을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불필요한 학교행사 통폐합, 교사의 자율성 강화,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신진용 아직까지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 후 체육활동은 무조건 체육교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타고난 선생님도 해당 종목에 능숙하다면 지도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1학생 1스포츠도 결국 체육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여전히 한계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이나 제도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선생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을 개최해 전국 의 체육교사를 모시고 교과연구 우수사례 공유와 학교체육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체육 네트워크 구축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직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이 없다고요? 지금 바로 교육부에 문의하세요"

- **지원내용**
 - ① 옥상 및 학교외벽 등을 이용한 간이체육시설 건립
 - ② 여유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실내체육시설 건립
- **문의대상** :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 **신청할 곳**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044-203-6635)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어린이 국회의원 “민주주의 직접 체험해요”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단체사진



올해 어린이국회는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초등학생들의 일일 국회의원 체험 국회의사당서 개최...전국 139개교 350명 참석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법률안 투표까지

“어른들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학교 규칙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학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은 우리의 법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의사결정 협의회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올려 퍼졌다. 법률안을 발표한 사람은 국회의원인 아닌, 어린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백재원 경남 관동초 학생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 7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행사다. 지난 3월부터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운영하며 법률안과 대정부 질문지를 작성했고, 행사 당일에는 선정된 우수법률안과 질문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의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39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학부모, 지도교사 약 350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매년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어린이국회가 열렸는데, 올해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열려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라며 “오늘 참여한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앞으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 필요”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

어린이국회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 의원의 법률안 발표와 찬반토론·표결이 이뤄진 후, 본회의에 부쳐질 법률안 7건이 결정됐다. 본회의에서는 우수법률안 발표에 앞서 어린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가 답변했다.

한동현 서울 한빛맹학교 학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질문을 던졌다. 한 군은 “음료수 캔에 표시된 점자는 모두 ‘음료’라고만 적혀있어서 주스인지, 커피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음료를 고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점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각장애인들의 비율이 64.4%에 달한다. 그만큼 정보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점자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제1차 점자발전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앞으로 점자 보급 및 확산과 더불어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해 질문한 임지안 서울 백운초 학생은 “유튜브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를 똑똑하게 선택해서 보는 비판적인 안목과 동영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시의적절한 질문”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이어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의무화, 학교 공간 혁신, 학교 내 화장실 위생 점검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일요일 사교육 금지 등 우수법률안 선정

총 139명의 어린이 의원들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선정된 우수법률안으로는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의 교류 활성화,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사 및 관리, 음식 배달 용기 재사용 등 일상생활 혹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청소년 행복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유현영 전북 김제중앙초 학생은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청소년 행복의 날에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서운 서울 원명초 학생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휴식권을 지켜야 하며, 어릴 적부터 자기 주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어린이 의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어린이 국회의원들의 말.말.말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 참여해 매일 흰 우유 대신 초콜릿 딸기 우유도 일주일에 한 번쯤 먹어보고, 학교준비물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한 준비물로 수업하면 수업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백재원 경남 관동초 학생

“학교와 교도소의 설계도를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배우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공간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유진 광주 연제초 학생

“저희 청양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작은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도시와 시골 학교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김단우 충남 청양초 학생



제3회 미래수다(秀多) 토크콘서트 청소년과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7월 17일 충남 천안박물관 공연장서 개최
중·고생, 교사, 학부모 등 250여 명 참석
박준영 변호사, 박찬재 대표 등 멘토로



박준영 변호사



박찬재 대표

제3회 '미래수다(秀多)-착한 리더들의 수다' 토크콘서트가 7월 17일, 충남지역 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미래수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재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대학생 시절 사회적기업을 세워 노숙인들의 빈곤 탈출을 지원해 온 박찬재(㈜두손컴퍼니 대표)도 만날 수 있었다.

미래수다 토크콘서트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이 미래교육위원회에는 현재 산업계·과학계·예술계·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 중이다. 현장 전문가 외에 교사와 학생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는 토크콘서트와 함께 위원별 온라인 영상 제작·공개, 회의를 통한 미래교육 관련 의제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월 27일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미래수다 토크콘서트는 경남 진주(6월)에 이어 서울(8월), 광주광역시(9월), 경기도(10월), 제주·경북(11월) 등 매달 한 차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인식을 점차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1부 행사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및 미래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짧막하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초고속

진공튜브 캡슐열차 하이퍼루프, 농사의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로봇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바뀌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잘 찾아내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착한 리더, '나만의 길 위에 서다'

1부 순서는 '착한 리더들의 수다'로 채워졌다. 미래교육위원회 멘토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나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먼저 강연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들의 재심을 이끌어내는 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주로 '청소년 시절에 꿈꿀 수 있는 꿈과 목표'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상하게 들려줬다. 전남 노화도 출신으로 군 제대 후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사연을 소개한 박 변호사. 영화 <재심>의 주인공으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재심 전문변호사'로 평가받지만,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인 스물네 살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사연도 이번에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에게도 “청소년 시절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원대하지 않아도, 또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다소 지난하고 더디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눅 들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123 제3회 미래수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박준영·박찬재 멘토와 학부모·학생 대표가 참여해 미래인재상과 미래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적기업 착한 리더로서의 7년

두 번째 ‘착한 리더’ 강연자는 박찬재 (주)두손컴퍼니 대표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퇴치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박찬재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인 2011년 여름.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퇴거하겠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다. 당시 막걸리를 사 들고 가 서울역사 주변의 노숙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었다는 박 대표. 이후 노숙인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싹틔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대학교 근처의 학생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가구를 업사이클링하여 판매하고 사랑의 옷걸이, 캐릭터 옷걸이 등을 만들면서 그의 꿈처럼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창업한 지 3년 뒤부터는 제조업에서 온라인 물류대행 서비스업으로 전환, 좀 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박 대표는 소개했다.

강연을 갈무리하면서 박 대표는 학생들에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지난 7년 동안 대표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하게 여겼던 가치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이었다.”면서 “우리 학생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2부 프로그램은 김승주 씨의 사회로 안도현 학생(천안 신당고)과 학부모 강희란 씨, 신정환 교사(천안 목천고), 그리고 1부 출연자였던 박준영·박찬재 멘토가 함께하는 본격적인 ‘미래: 토크’ 콘서트가 막이 올랐다.

먼저 신정환 교사는 “1부에서 진행된 박준영·박찬재 두 멘토의 강의가 평소 꿈꾸기에 나타했던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학부모 강희란 씨 역시 “학생들이 본받을만한 삶으로서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두 분께 특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인사했다.

2부 토크콘서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선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주제였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장애인들 모두가 소외 없이 살아가고, 누구든지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안도현 학생**

“우리사회가 과정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한 세상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경청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구요.”

학부모 강희란 씨

“선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신정환 교사**

다양성 존중되는 미래교육 풍토 정착돼야

토크콘서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다. 신정환 교사는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문계고 내에서의 인문학 수업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고에서 대학진학만이 목표였다면 불가능했을 수업들이 개설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학습도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

다. 신 교사는 “원하는 학생상이 개별적으로 다양한데,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학부모 대표인 강희란 씨 또한 “예체능 영역 등 학생들의 재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동아리 활동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주제에 대해 안도현 학생은 “신당고에서도 학생들이 10시간 수업계획을 직접 짜고, 선생님도 직접 섭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곁에서 이를 경청하던 박찬재 대표는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직접 경험해 본 내용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수업방식의 전환이 미래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정환 교사는 2부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교육 풍토가 정착되고 있는 이 즈음 교육현장 밖에서도 학교를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2부의 마지막 순서인 미래교육위원 멘토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사회적기업 CEO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재심전문 공익변호사라는 타이틀의 선한 리더로서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 등 박준영 변호사, 박찬재 대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 공세가 한동안 계속됐다. ②

**미래교육위원들이 직접 들려주는
나와 우리의 미래, '나우미래'**

매주 목요일 유튜브 '교육부TV' 채널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동영상 시청 방법
- ① 유튜브 검색창에 '교육부 나우미래' 검색
- ② 유튜브 '교육부TV' 접속 → 재생목록 중 '나우미래'에서 시청

BK21 20주년, 그 성과 및 향후 계획

IMF 이후 고급인력 양성 나서 대학 연구역량 및 국제경쟁력 향상 두뇌유출 등 한계점 극복해야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만 9,730달러로 세계 29위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우리나라 총 연구비는 세계 5위(910억 달러), GDP 대비 총 R&D 투자는 세계 1위(4.55%)를 기록하였다.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에 대한 꾸준한 투자 결과, 2017년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수 세계 12위(60,529건), 2018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 세계 5위(17,017건), 우리나라 상근상당 연구원 수(FTE) 세계 6위(38.3만 명) 등 대단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및 그 성과에 따라 학계가 좀 안주할 만도 하나, 2019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으로, 일본의 무역도발 등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교육·과학·기술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처럼 들린다.

BK21사업의 과거와 현재

1997년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차입으로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 만료와 아시아 경제에 불안을 느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

이나 부도, 대량 실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IMF 관리체제 내에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IMF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사회 최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고급인력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1999년 BK(Brain Korea, 두뇌한국)21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BK21사업을 시작할 즈음(1998년) 우리나라의 SCI 기준 논문 국가 순위는 18위였고(미국의 3.9%, 일본의 15.2%), 인적자원 국가경쟁력 평가 4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1999. IMD). 1999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시초로써 BK21사업을 지원한 이래 20여 년이 지났다. 1단계 BK21사업(1999~2005년), 2단계 BK21사업(2006~2012년), BK21플러스 사업(2013년~현재) 등 총 3단계를 거치면서 지원현황은 어떠했는지, 우리나라의 연구수준과 인력양성 수준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BK21플러스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 BK21 ('99~'05)	2단계 BK21 ('06~'12)	BK21 플러스 ('13.9~'20.8)	
총 사업비	1조 3,409억 원 (연간 약 2,000억 원)	1조 7,566억 원 (연간 약 2,500억 원)	약 2조 원 (2019년 2,724억 원)	
지원규모	72개 대학, 438개 사업단('99)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06)	73개 대학, 550개 사업단('13)	
지원 인력	참여 대학원생	연간 1만 2천여 명	연간 2만여 명	연간 3만여 명
	참여교수	3천여 명	7천여 명	7천여 명

01 1단계 BK21사업(1999~2005년)
1단계 BK21사업의 목적은 ‘첨단기술분야의 고등인력양성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과 이를 통한 국제수준의 R&D 인력양성’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2천억 원씩 총 1조 5천억 원이 72개 대학 438개 사업단(팀)에 지원되었다. 1단계 BK21사업의 7년간 지원을 통해 ‘SCI 논문 게재 제고’, ‘학부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구축’, ‘국립대 특별회계 책임운영제 확보’ 등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성과중심의 연구풍토와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정체된 대학사회에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국제적 연구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며(SCI 국가 순위: 9,444편(1998년 세계 18위) → 18,497편(2004년 세계 13위)), 첨단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석박사를 집중 배출하고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 및 자신감이 고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석사 50,874명, 박사 23,009명, 계약교수 3,196명, 박사후 과정 4,913명 배출).

02 2단계 BK21사업(2006~2012년)
1단계 BK21사업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연구중심 대학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가속화가 필요하였고 미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될 시기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2단계 BK21사업에서는 ‘세계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지식 이전 세계 10위권 도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간 약 2천 5백억 원씩 총 1조 7천억 원을 7년간 지원하였다. BK21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및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학문 전 분야의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QS 세계 대학평가 200위권 대학 수 : 2007년 2개 → 2012년 6개)

03 BK21플러스 사업(2013년~2020년)
1단계, 2단계 BK21사업이 14년간 지원되면서 대학의 연구역량이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BK21플러스 사업에서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융복합분야의 핵심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간 2천 7백억 원, 총 2조 원을 7년간 지원하였다. BK21플러스 사업지원을 통해서 연구중심대학로의 개편을 고도화하고, 주요 핵심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배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에 각각 연평균 1,474명, 5,853명의 석사 및 박사 인력 배출, 연평균 신규수요의 약 2.1%).

04 BK21사업에 대한 해외 평가

- **美고등교육전문지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04.7)**
‘과거 10년간 세계 과학계는 한국의 대학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최근 이 나라의 연구진이 내놓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논문들과 연구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BK21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을 우수 연구 대학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
-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연구소 연구 보고 ('05.8)**
‘인적 자본이 성장의 열쇠(Human Capital is the Key to Growth) : 성공사례와 정책’에서 BK21사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며, 연구 인프라와 대학원 교육질 제고를 통해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
- **일본, BK21사업 벤치마킹하여 연구거점육성사업(COE)에 반영 ('11)**
사업 초기 대학원생 지원 항목이 없었으나, BK21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원 지원금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4단계 BK21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BK21사업의 미래

우리나라의 상근 상당 연구원 수(FTE)는 38.3만 명으로 세계 6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 연구원 수 비중은 10.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 기준 두뇌유출지수 4.00(측정대상 60개국 중 43위)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국외로 유출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2] 주요 국가별 대학 연구원 수 비중 (2013~2017, FTE 기준)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영국	59.19	59.24	58.87	57.98	58.22
캐나다	36.93	36.15	36.11	38.20	-
덴마크	37.77	38.29	37.81	36.22	35.74
프랑스	27.40	28.85	28.68	-	28.26
독일	27.96	28.70	26.59	27.50	27.32
일본	20.68	20.15	20.70	20.75	20.51
중국	18.37	18.52	18.54	18.20	18.84
러시아	20.22	20.57	20.59	19.36	18.50
한국	12.98	12.14	11.46	11.28	10.13

* 출처 :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8/2

2019년 6월 28일 BK21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다.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도 BK21사업이 20여 년 동안 51만 명의 석박사급 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구경쟁력을 높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질 질적 성장 및 국민 실생활 개선으로 연계,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융복합 지원,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하였다.

BK21사업 20여 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2020년부터 시작되는 4단계 BK21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4단계 BK21사업의 핵심 방안으로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원 혁신 지원을 통한 대학원 체질 개선’,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혁신 인재 집중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전적·장기적 연구 유도’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원생 등의 학문후속세대의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장학금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단 중심 연구에 따른 학문분야 분절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시스템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원혁신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BK21사업 지원을 통해서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재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문흥초, 정당중심 학생회 선거 눈길



광주 문흥초등학교(교장 정낙주)가 전교학생회 선거를 정당중심으로 치러 눈길을 끌었다. 정당

정당방식의 제도는 동아리들이 중심이 돼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에서 학년별(4·5·6학년) 대표를 각 1명씩 출마시켜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5개의 정당이 출마했다. 피구를 좋아하는 ‘공중아당’, 티볼을 사랑하는 ‘우리는빛난당’, 축구동아리 중심의 ‘문흥FC 축구당’, 여남평등을 지향하는 ‘양성평등당’과 신입생 환영회 등으로 학교를 즐겁게 하겠다는 ‘즐거운학교당’ 등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중심의 선거방식은 학생회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생회가 ‘학생이 없는 학생회’라는 비판과 ‘인기투표’ 식으로 진행된 점을 반성하며 새롭게 시도하는 민주적 방식의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흥초 학생회는 지난 4월부터 광주교육청의 권고대로 학생회 규정을 제정했다. 학년 다모임과 학생대의원회를 통해 규정을 만든 후 전교생 투표를 통해 학생회 규정을 수정하며 정당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토론 및 선거도 하루에 몰아서 하는 행사 방식에서 유권자를 먼저 생각하는 학년별 토론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했다. 학년별 다모임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후 다른 학년 대표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총 4회 진행됐다. ‘현대 민주주의의 꽃이 정당’이라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의 말처럼, 초등학교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소토초, 학생이 주체가 된 ‘친구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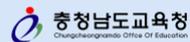


양산 소토초등학교(교장 이민선)가 지난 7월 9일 ‘친구의 날’을 맞이하여 미션 보물찾기 활동을 했다. 이번 친구의 날 활동은 학생자치회

미션 보물찾기는 학급의 친구와 짝을 이루어 보물을 찾고, 해당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개의 미션(소품을 활용한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안대를 활용한 짝 게임, 풍선 주고받기 게임, 협동 2인 3각, 협동 신발 던지기, 친구에게 상장 만들어주기)을 통해 친구 간의 협동과 배려심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

가 주관하여 활동 준비와 홍보, 진행을 도맡아 했다. 학생자치회는 지난 6월 자치회의를 통해 ‘친구의 날’에 하고 싶은 활동을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실현 가능한 활동을 정했다. 이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진행방법 등을 정해나갔다.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자치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민선 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동적으로만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가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미션 활동을 통해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소토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평화교육센터에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통일시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평화교육센터란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하고자 충남교육청이 새롭게 설치한 센터로 참학력을 바탕으

로 자율과 존중, 연대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와 자치능력 향상 및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 △ 학생 인권 침해 사안 상담 및 조사를 통한 학생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의식과 인권의식 향상을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미래 통일 사회 대비 학교 평화·통일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참여와 체험 중심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수를 비롯해 민주시민교육 자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정보 공유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모든 사업에서 적극 협력기로 했다.



어머니의 나라 다녀왔어요!



“엄마, 필리핀은 냄새가 참 좋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편안한 향이 코끝을 맴돌아. 이 냄새를 엄마에게 맡게 해주고 싶었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나머지도 이렇게 행복하고 돌아가는 게 아쉬운데 엄마는 얼마나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

속초여고 김은희 학생이 어머니께 쓴 편지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24명이 어머니의 나라 필리핀을 방문하는 청소년 해외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왔지만, 부모 모국을 방문하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보육원을 찾아 실내 페인트 도색, 시설물 보수와 책장 조립, 한글 동화책 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했으며, 앙헬레스 시티 국립고등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에게 한글 가르쳐주기, 명랑 운동회, 우정의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했다. 김은희 학생은 “엄마의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 나라인지 알게 됐다.”라며 “행복하고 벅찬 순간이 많았고,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강원도교육청은 향후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술고, 행동과 참여로 배우는 '인권캠프'



“할머니 힘내세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켓을 들었다. 한술고등학교(교장 유인식)는 지난 7월 31일 역사 동아리 ‘햇불’ 및 참여를 희망한 학생 30여 명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시위) 현장과 경기도 광주 위안부 나눔의 집 및 역사관을 방문하는 ‘2019 평화 나눔 인권캠프’를 추진했다. 이번 인권캠프는 학생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와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행동, 그리고 참여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촉발한 한국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이루어져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술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이날 수요집회에 참여한 임태영(3학년), 이선희(3학년) 학생은 한술고 대표로 자유발언에 참여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긴 투쟁의 끝이 하루빨리 찾아와 할머니들의 일상이 안 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요집회를 마친 한술고 학생들은 위안부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 퇴촌면 소재)을 방문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견학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쟁범죄의 문제점과 처벌, 평화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한술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평화 나눔 인권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학교 놀이공간의 혁신, '어디든 놀이터'



목포한빛초등학교(교장 김형국)가 교내 곳곳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한 '어디든 놀이터'로 눈길을 끌고 있다. '어디든 놀이터'는 빈 교실 등을 확장해 60여 평의 공간에 5개 놀이 영역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크 휴게 공간, 경사면을 활용한 사면놀이기구, 암벽 등반 기구, 서로의 끼를 발산하고 펼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공간, 게임존 등이다. 복도 곳곳에 뉴스포츠 공간, 체력단련 공간, 댄스 공간, 토크 공간을 설치하고, 남는 칠판을 활용한 낙서공간도 마련했다. 공간 구상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4~6학년 전교학생회 임원단은 '어디든 놀이터' 공간 마련을 위한 디자인 회의를 진행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놀이공간을 선정하고 디자인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최종 디자인의 안전성 유무를 점검했으며, 놀이공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다. 목포한빛초는 이번에 조성한 '어디든 놀이터' 외에도 학교 유휴공간을 학생들과 협의해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꾸며갈 예정이다. 2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①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마을의 힘! '교육공동체'로 인구 유입 늘려

인구의 자연감소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도 매년 속출하고 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며, 203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24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행복한 교육>에서는 5회에 걸쳐 우리교육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③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④ 지방교육 재정의 해안 ⑤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교육, 복지,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의 자연감소로 학령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면적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전남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까지 더해져 전체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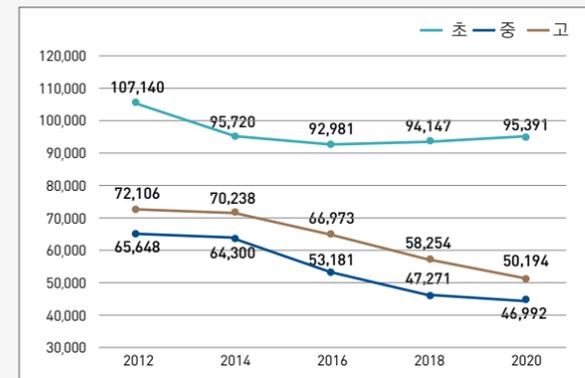
전남의 학생 수는 2000년 말 대비 2019년 현재 12%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0.1%의 감소 추이를 보인다. 또한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3교(9%), 중학교 5교(2%), 고등학교 1교(1%)로 총 49교에 달한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주로 산간벽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시·도별 초·중·고교 학령인구의 감소를 '18년 현재 학생 수와 비교하면, '45년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약 32.11%, 18년 초·중·고 학생 수 대비)이고, 18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부산(-27.34%), 대구(-29.83%), 광주(-27.06%), 강원(-26.22%), 전북(-30.48%), 전남(-30.12%), 경북(-28.12%), 경남(-26.75%)으로 총 8개 시·도이다.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시(79.26%)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증가는 약 3만 4천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남의 작은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60명 이하 학교를 말하며,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남의 작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남의 전체 초·중·고 878교에서 작은학

[그림] 전남의 학생감소 추이(2019 전남교육통계) (단위: 명)



[표1] '18년 학생수 대비 '20~'45년 학령인구 감소 비율 (단위: %)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서울	-4.49	-11.32	-16.54	-17.48	-18.56	-24.08
부산	-1.93	-5.21	-12.52	-18.16	-21.10	-27.34
대구	-3.99	-9.76	-17.45	-22.24	24.22	-29.83
인천	-0.36	-2.32	-6.53	-7.13	-7.53	-12.80
광주	-5.09	-11.12	-17.64	-20.43	-21.90	-27.06
대전	-4.86	-9.56	-12.78	-12.30	-12.60	-18.28
울산	-1.72	-2.85	-8.90	-13.40	-15.51	-20.93
세종	41.64	70.24	75.05	77.52	82.25	79.26
경기	0.35	-1.93	-6.17	-6.77	-7.21	-12.63
강원	-4.98	-11.64	-17.88	-19.87	-21.18	-26.22
충북	-3.01	-5.76	-9.70	-10.31	-11.02	-16.59
충남	-1.77	-1.52	-4.27	-4.32	-4.87	-10.40
전북	-7.56	-13.53	-20.28	-23.35	-25.25	-30.48
전남	-6.72	-12.07	-20.13	-24.94	-27.27	-32.12
경북	-4.06	-8.55	-15.93	-20.76	-23.12	-28.62
경남	-1.77	-5.60	-13.77	-18.96	-21.49	-26.75
제주	3.94	5.78	3.66	3.36	3.59	0.95
합계	-25.10	-5.69	-11.05	-13.09	14.27	-19.68

[표2] 전남의 작은학교 현황(2019 전남교육통계) (단위: 개교)

구분	초		중		고		계					
	본교	분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전체 학교수	429	51	480	248	8	256	142	-	142	819	59	878
작은 학교수	181	51	232	123	8	131	14	-	14	318	59	377
작은학교 비율	42%	100%	48%	50%	100%	51%	10%	-	10%	39%	100%	43%

교는 377교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면지역이 41%로 가장 높고 시지역 24%, 읍 지역 20%이며 도서벽지가 15%이다. 읍 이하 농어촌학교의 비율은 76%를 차지한다.

한편, 전남은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전남지역에서 2040년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98개 읍면동으로 전체 297개 읍면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교육청 내부자료). 전남의 지방소멸 심각성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인구자연감소와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늘어나는 학교

01 협동학교군 및 통합학교 운영

협동학교군은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지리적 특성, 지역 정서, 학력 특성 등이 유사한 학교끼리 협력적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군이다. 작은학교 간 협동체제를 통하여 지역과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남의 협동학교군은 103군이며, 258교 11분교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학교군은 학생교육력 향상, 교원역량강화, 학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학교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학교 운영에 있어서만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간 시설·설비의 공동 사용뿐만 아니라 교원의 통합운영 및 사무·회계 관리 등 제반업무 처리의 일반화를 말한다. 현재 전남에는 초·중 10교의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통합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여 수업운영의 유연성을 기하고 범위도 학교 간, 학급 간 통합수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학년이나 학교의 개념을 넘어선 무학년제 통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남 장흥에 위치한 부산초등학교는 전교생(유치원생 포함)이 49명인 전남의 대표적인 작은학교다. 사진은 1~2학년생 체험학습과 2학년생들의 마을탐방 모습.

02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정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황폐화가 지속되자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2018.3.29)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작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육감에게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은학교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학생통학 편의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등이 있다.

03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농어촌 작은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작은학교 특색사업과 학교-마을-지역사회연계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교 단위에서

는 작은학교 지원 모델을 발굴하여 산촌유학학교, 통합학교, 학교-마을연계 등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촌유학센터는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의 부모가 함께 귀촌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수리하여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6개의 농어촌유학센터(학교)에서 84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04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지역의 학교 규모가 큰 학구에서 작은 학구로의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학구제로 시·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 한 방향 진학만 허용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시·읍지역 일정규모 이상 학교와 면지역 작은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작은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 간 상생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시·읍지역의 학급 수 기준을 기존 30학급 이상에서 초 12학급, 중 9학급으로 완화하였다. 현재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16지역, 197교(초160교, 중37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증가하는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5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

농어촌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한데다 노선이 많지 않아 등하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농어촌 및 통학취약 지역의 초·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를 지원하고자 에듀버스 76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6교 2,480명의 학생들이 통학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에듀버스가 없는 농어촌 및 통학취약 지역 학교의 원거리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9대의 에듀택시가 7개 시·군, 42교에 지원되고 있다.

06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및 인사 우대

도서지역 및 농어촌 근무기피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신규교사 비율이 높고 전보 이동이 잦은 지역의 교단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및 인사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무기피 지역의 교원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우선 임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기간(8년) 동안 장기근무하며 안정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통한 교사임용 현황은 초등 76명, 중등 56명이다. 또한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경력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에서 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효율성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이 목표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를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다.

인구자연감소와 학령인구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작금에서 전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남의 경우,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한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정주요건과 일자리였다. 지역에 정착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에 전남은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농어촌 산업환경은 과거처럼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스마트팜, 로봇농업 등 농어촌사회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남은 농촌과 도서벽지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원을 자랑한다. 특히, 완도, 신안 등 도서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화작물이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즉, 자원 활용도가 산간지역 대비 도서지역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증가하는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의 공간혁신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미래학교' 등을 통해 늘어나는 폐교와 노후 학교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나아가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학교,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2

탁 썸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덜컹덜컹 음악회



호두알이 툭툭 굵어지고 바위가 으깬으깬 땀 흘리고 7월 밤하늘에 별이 노래한다. 우리도 노래한다. 교실에서 우리끼리 부르던 노래를 밖에 나가서 불러볼까. 손수레에 악기를 싣고 덜컹덜컹 골목길 지나 바람 시원하게 부는 바닷가로 가자.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마을에서 지내며 마음에 닿은 것들을 시로 썼고, 쓴 시를 흥얼흥얼, 길게 짧게 높게 낮게 읽으며 노래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냄비 뚜껑을 두드리다가 요즘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는 악기를 구해서 연습한다. 윤서는 캐스터네츠와 카주, 태준이랑 성원이는 우쿨렐레, 영한이는 멜로디언, 현빈이는 카혼. 악기 하나씩 잡고 폼 잡으니 음악 밴드 같다. 남들 앞에 서려면 밴드 소개부터 해야지.

“우리 반 밴드 이름을 뭘로 할까?”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불건전 소년단.”
“빵터진 소년단요.”
방탄소년단 표절이지만 그대로 첩판에 적었다. ‘불건전 소년단’.

“빨간 맛 소년단!”
빨간 피처럼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것도 뭔가 표절 같기는 한데, 무슨 표절인지는 모르겠다.

“파인애플주스단.”
“우리 반은 남정네만 있어서 신맛과 단맛이 필요해요. 커서도 신맛과 단맛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뜻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파인애플을 안 좋아하니까 반대.

첩판 글씨를 조그맣게 적었다.
“우리 모두 다섯 살.”
“비만 소년단.”
“…….”
투표 결과 내가 싫어하는 파인애플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하는 수 없이 오늘부터 우리 반은 ‘파인애플주스단’이다.
“돈 벌어요?”
글쎄……. 아직은 소음 수준인데. 돈 대신 돌이 날아올 것 같은데.
“수입은 어떻게 해요?”
노래 잘할 생각보다는 돈만 밝히는 건 아닌지.
“여섯이 똑같이 나눌 거야.”
선생님은 월급 받으니까 빠지라 한다. 수학 잘한다는 태준이가 연필 들고 계산했다.
‘십만 원 넘게 벌면, 120000:5, 120000/5는 24000.’
“한 사람한테 이만사천 원.”
“우와 ……….”
영한이 눈이 반짝 빛났다.
돈 얘기가 나오자 아이들 관심이 더 커졌다. 연습 또 연습. 카혼은 유튜브 켜놓고 연습, 우쿨렐레 치는 아이는 겨우 세 개 익힌 코드로 강약만 조절하며 치는 연습, 멜로디언은 도레미파 계이를 외우고, 아직은 누가 들을까 겁나는 수준.

창밖에서 껍뻍거리며 날아가는 직박구리 새만 못 하다. 그래도 간다. 시작은 해놓아야 그걸 딛고 또 나아갈 수 있지. 아니야, 처음부터 너무 무너져버리면 아예 의욕이 꺾일 수도 있어. 될 수 있으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파인애플주스단’의 긴장 가득 데뷔 무대

달력에 표시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고, 드디어 7월 9일 오늘. 손수레에 악기 싣고 교문을 나섰다. 나설 때는 떠들썩했다. 파인애플주스단 화이팅, 엄청 유명해질 거다, 유튜브 스타로 뜰 거다, 까불거리더니 마을 길 지나 바닷가 해수욕장이 가까워질수록 말 수가 줄어들었다. 말뿐만 아니라 몸도 줄어들었다.

“아, 안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와요. 제발.”
그러나 한 번 온 걸 어떻게 하나. 그냥 해보자. 소나무 그늘 드리워진 바닷가 하얀 무대 근처에 손수레를 세우고 무대 위에 올랐다. 마이크대 두 개 세우고, 스피커 정면에 놓고, 악보대 놓고, 멜로디언 연주하는 아이는 의자에 앉고, 카혼 치는 아이는 네모난 상자 악기 위에 앉고, 우쿨렐레 연주하는 두 명이랑 나는 일어섰다. 우리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공연 매너’라는 게 있으니까 차림새도 뭔가 좀 멋져야겠지. 나는 준비해온 선글라스를 썼다. 그럼 우리도, 하며 윤서와 현빈이가 주머니에서 검은 입마개 마스크를 꺼내더니 눈을 가렸다. 창피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 에라이……. 내가 선글라스 벗으며 소리쳤다.

“너네도 벗어!”
두 아이가 검은 마스크를 벗어서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는다. 고도 비만 덩치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또 애원한다. 다음에 연습해서 잘하자고, 요번에는 자신 없다고. 하는 수 없이 무대를 내려갔다. 공연은 무대 아래 소나무 그늘에서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노래. 태준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자기 노래를 소개했다.

“아아 ……… 이 노래는 우리가 학교 뒷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자기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빌리진, 보헤미안 랩소디, 랫잇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둘, 하나둘셋넷, 노래 시작.
“땅을 넓힌다 땅을 넓힌다…….”
시작은 우물우물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뒤로 갈수록 조금 커지기는 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섰다.

“다음 노래는 성 부수기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반 친구 성원이가 쌓은 모래성을 태준이가 부숴버렸고, 성원이가 뺀 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성원이가 쌓은 성, 위험해, 위험해, 태질라가 성을 공격한다 푸아악 푸아악…….”

저 멀리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이쪽으로 고개 돌렸다. 선글라스 낀 여성이 가까이 다가와 손뼉을 쳤다. 박수받은 아이들이 갑자기 사기가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노래,
“자전거 타고 연어길을 달린다. 쉬이이잉…….”
무사히 공연 마쳤다. 선글라스 여성이 “잘했다. 짹짹.” 하며 아이들한테 만 원을 건넸다. 나는 못 본 척 저쪽으로 고개 돌렸다. 성원이가 우히히히 손을 내밀어 넉죽 받는다. 우리 반 다섯 명이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다.

“이천 원 지금 줄까?”
저축해 달라고 한다. 언제든 달라면 주겠다 하고, 내가 맡아놓기로 했다. 악기 정리하고, 파인애플주스 한 잔씩 마시고, 다음엔 잘하자 엄청 연습해서 돈 많이 벌자, 떠들어대며 손수레 덜컹덜컹 끌고 학교 교문을 들어섰다. 학교 마친 뒤 내가 선글라스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까 고마웠어, 하고.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자신감이 없는 지훈

아이들은 성적부담과 미래 걱정 속에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그 결과 자신감이 낮아져 섭식장애, 틱장애, 대인 불안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적 상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전 아무것도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문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지훈은 공부가 엉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담이 크다. 엄마가 영어·수학학원을 끊어주셨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 다니다 말다 한다. 학교에 있으면 집에 가고만 싶은 생각에 오후가 되면 힘든 표정이 얼굴에 뚜렷하다. 집에 돌아오면 다음 날 아침까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며 미친 듯 게임에 빠져 산다.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몸무게가 90kg이 되었고, 인상도 짜증 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진단

지훈이가 항상 책상에 널브러져 있으니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야단 치셨고, 매일 일곱 번씩 야단맞는 지훈을 본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권하셨다. 상담 선생님이 몇 가지 심리검사를 해보니 다면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이 심했고, 기질 및 인성검사에서 위험 회피성과 의존성이 상위 2%였다.

상담선생님이 상담 테이블에 앉으니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 아무것도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이든 끝을 못 맺겠어요. 답답하고 무서워요.” 상담선생님이 말했다. “자신감을 너무 잃으면 모든 게 안 될 것 같겠지. 이해해. 자, 지금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렴. 네 주변에 무엇이 보이니?” “손가락이 보여요. ‘아이고, 못난 새끼! 죽어라, 죽어!’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따라와요.”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니?” “아니요. 손가락만 보여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알 만하다. 지독하게 비난받지만 차마 그 얼굴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부모님 중 한 명이다. 이것이 자신감을 다 깎아 없앴다.

지도

상담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말했다. “지훈이는 자신감이 없어서 공부도, 친구 사귀는 것도 다 엉망입니다. 못한다는 타박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훈 엄마가 말했다. “제가 화를 덜 내야 하는데, 그만 화를 많이 냈나 봐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만되지질 않네요. 제가 심하게 나무라면 애도 못 견디겠는지 가출했다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거든요.” 상담선생님은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일이 잘 풀리겠다 싶어서 물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지훈이에게 화를 많이 냈어요? 거의 자제가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지훈 엄마가 말했다. “제 아버지가 화를 잘 내셨어요. 늘 저를 무시하고 막 대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여공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서 방구석에 두었거든요.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걸 풀어 보시더니 ‘이걸 네년이 샀다고? 네년이 무슨 돈으로 샀겠어? 동생이 샀겠지.’ 했어요. 저는 그 자리서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집을 뛰쳐나와서 자취방으로 가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왜 그러셨던 건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지훈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오래 기다렸다가 상담선생님이 말했다. “그러셨군요.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때 그렇게 억울해서 아직도 화내고 계신 걸 알겠어요. 하지만 그 화를 지훈이에게 퍼부으시면 지훈이가 다치잖아요. 아직 어린 지훈이도 억울하게 만드실 거예요? 엄마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말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대로 지훈이를 혼내고 있었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몇 주 후 지훈이 찾아와서 말했다. “잘 생각해보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9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비록 모의고사였지만 반에서 7등 한 적도 있고요.” 엄마가 손가락질하는 대신 칭찬을 해주시니 자신감이 되돌아왔고, 그 때문에 잘했던 기억이 떠오른 덕이다. 그 후 지훈이가 다시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래요.” 그래, 지훈아. 멋지구나. 어느 누구든 비난을 많이 받으면 있던 능력마저 잃어버리지만, 지지를 많이 받으면 없는 능력마저 생기는 거지. 이제 우울증이니 편집증이니 다 등 뒤로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렴. ②

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교사는 방학이 있으니 좋겠다.” 교사가 되어 처음 맞이했던 방학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되고 보니, 방학이라는 이 시기가 저를 발전시키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기를 위해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쉬기에도 부족한 방학인데 그 시간마저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려 마음 쓰시는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교사에게는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깨우침으로 이끄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01 이를 수 있는 작은 목표 세우기

1940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대학 2학년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5분을 뛰는 간단한 실험이었고 실험을 마친 학생들은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때 부터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130명의 학생을 대학 졸업 후 2년마다 연락해 근황을 물어보며 무려 40년이나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60대가 된 시점에 놀

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겪은 직업적 성취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지능이나 성격,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그릿(Grit)’ 점수에만 비례했습니다. ‘그릿 점수’는 러닝머신 실험 당시 ‘체력의 한계가 닥칠 때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을 더 뛰었는가?’를 바탕으로 매겨진 점수였습니다.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작은 목표’를 세워 ‘작은 성공’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학, 거창한 목표보다 이를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를 꼭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조금씩 이전의 자신보다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혹시 아이들과 힘들었다 해도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학기에 화를 너무 많이 낸 게 마음에 걸리면, ‘화를 내도 낮은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하기’ 같은 목표를 세우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학기 초 목표를 ‘야! 라고 외치는 대신 애들아 라고 말하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멋지지 않나요? 아이들과 방학하는 날, ‘방학 현수막’을 만들어 한 가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게 했습니다. 함께 정한 제 방학 목표는...



02 교육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에 관심 기울이기

교사는 자아를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 파커J.파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는 교사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려 애쓰고, 아이들의 즐거움을 1순위에 두고 생활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강의보다 활동적인 수업을 지향하며 숙제도 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을 1순위에 두는 교사는 재미있는 수업보다 진지한 탐구 자세, 아이들의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복습과 공책 필기 등을 더 강조하고, 과제를 철저히 검사하여 성실하게 해내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지 등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업무와 수업을 처리하다보면, 정작 교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학급의 아이들을 살펴볼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급경영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나는 지금 왜 힘겨운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여유가 없는 선생님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라 바쁘게 그러다보

니 어딘가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학급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학생의 상황을 깊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는가?’, ‘학생들은 의미있는 배움을 얻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천천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교육철학을 다시 세우기에는 이성우 선생님의 <교사가 교사에게>, <교사가 말하는 교사 교사가 꿈꾸는 교사>, 함영기 연구관님의 <교육 사유> 등의 책이 좋습니다. 깊이 있는 학급운영을 하고 싶다면, 학급긍정훈육법, 학급경영코칭, 학급운영시스템,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등을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03 아이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가지기

교육철학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제가 교육대학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할 교과를 정할 수 있다면, 단연코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코칭’과 ‘비폭력대화’, 그리고 ‘교사역할훈련’ 과정을 넣을 것입니다. 하임.G.기너트의 <교사와 학생사이>,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토마스 고든의 <교사역할훈련> 책을 읽거나 오프라인 연수에 꼭 참여하시길 강력합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2학기 교실로 돌아와 반복해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아이들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며 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브루타, 교실놀이 등 수업 기술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학생들에 대한 느낌과 욕구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도산서원

서원의 화려한 부활 세계문화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

書院

서원(書院)은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을 연구하고 훌륭한 유학자의 제사를 모시던 공간이다. 성리학에 충실한 향촌 출신 사람이 중앙에 진출해 영향력을 넓혀 나간 것과 서원의 번영은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이 중앙에서 세력을 구축하면 할수록 사람의 근거지인 서원은 향촌 사회에서 공론을 모으고 백성을 교화하는 장(場)으로서 그 지위를 굳혀 갔다.

조선에 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543년(중종 38)이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해당하는 풍기에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그곳에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백운동서원은 중국 장시성의 루산(廬山)이란 곳에 있던 백록동서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름이다. 백록동서원은 당나라 때부터 학자들이 수려한 산천을 벗 삼아 학문을 닦던 곳으로 성리학을 완성한 대학자 주희의 자취도 어려 있다. 백운동서원의 유생들은 주희의 뜻을 이어받아 학문을 연마하고 그곳 출신으

창조적 학문 탐구, 자랑스러운 전통의 계승, 도덕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서원을 통해 키워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로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제사 지냈다.

훗날 풍기군수가 된 이황은 백운동서원에 편액(글씨를 써서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을 내려달라고 명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명종은 그 뜻을 받아들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쓴 액자를 하사했다. ‘소수(紹修)’는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계승(紹)하여 닦는다(修).”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처럼 국왕이 편액을 하사한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사액서원에 딸린 토지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비들은 국역을 면제받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학문과 제향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배려였다.

서원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사람이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덕분이었다.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서원으로 승급되던 16세기 중반은 성리학적 도덕 정치를 주장하는 사림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공신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기득권 세력이 사림을 공격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귀양 가는 사화(士禍)도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림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국왕의 국정 동반자가 된 것은 16세기 말의 일이었다. 그와 더불어 전국 곳곳에는 서원이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고 사액서원의 특권을 누리는 곳도 늘어났다.

서원은 중국에서 시작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서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도 한층 더 발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의 서원이 주로 국가의 관료를 키워내는 역할을 했다면, 조선의 서원은 경제적 고려에서 벗어나 인간과 사회의 원리와 성격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국가적 특권을 누리면서 향촌 사회에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횡포를 부리는 서원도 생겨났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서원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는가 하면, 죄지은 사람을 서원에 숨겨주고 대가를 받는 일도 있었다.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던 사림의 근거지가 스스로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 갔던 것이다.

초심을 잃어 가던 서원에 철퇴를 내린 것이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였다. 그는 60여 년간 이어진 일부 가문의 세도정치를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630여 곳에 이르던 서원을 정리했다.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국가가 정해 주고 유학자를 중복해서 제사 지내는 서원은 하나로 통폐합해 나갔다. 그 결과 1871년(고종 8)에는 47곳의 서원만 남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곧 실각했지만 이어진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서원이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는 어려웠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에도 서구의 모델을 좇는 근대화 바람에 밀려 서원이 초창기의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2019년 7월 6일 아홉 군데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서원이 결코 구시대의 퇴물이 아니며 현대에도 보편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쾌거였다. 물론 그것이 150년 전 서원 철폐를 유발했던 일부 서원의 타락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아닐 것이다. 초기 서원이 지향했던 창조적 학문 탐구, 자랑스러운 전통의 계승, 도덕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서원을 통해 키워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

평화의 길, DMZ와 나란히 걷다

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사선으로 양 귀를 맞추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접는다. 삼각형의 날개를 펴두고 아랫부분을 잡는다. 그렇게 완성된 하얀 비행기로 여름 하늘을 수놓아 본다. 종이비행기는 얼마 가지 못해 바닥에 떨어진다. 좁고 날리기를 반복하며 이 비행기가 갈 수 없는 먼 땅을 그려본다. 이글거리는 8월의 태양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여장을 챙긴다. 절정에 이른 여름, 평화와 방어가 한뜻으로 분류되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서 가 볼 수 있는 북에 가장 가까운 땅으로 간다.



철원 DMZ 평화의 길 코스



그림 및 출처 :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

정
보

백마고지 전적지, 여정의 시작

남한 끝 어딘가에 철조망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 있다. 인적 드문 이 공간을 기준으로 남쪽은 한국이, 북쪽은 북한이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DMZ는 병력과 군사시설을 둘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되었다. 육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에 달하는 구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에 이르는 지역을 DMZ로 분류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대인 만큼 DMZ는 첨예한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육십여 년에 이르도록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화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민간에 개방된 적이 없었던 이곳이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와 부속 합의 등을 계기로 ‘평화의 길’이 되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감시초소 철거, 유해 발굴 등의 작업이 한창인 고성, 철원, 파주의 세 지역에서는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DMZ 평화의 길’을 열어둔 채 여객 맞이에 한창이다.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출발해 백마고지 전망대, 공작새 능선 전망대, 통문을 거쳐 비상주 GP에 이르는 지역을 둘러

볼 수 있는 철원으로 간다. 집결지는 백마고지 전적지다. 이 곳은 백마고지 전투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든 곳이다. 1952년 10월, 해발 395m에 불과한 고지 점령을 위한 열흘간의 사투가 있었고 말을 닦은 이 땅은 24회나 주인이 바뀌는 참상을 겪은 후에야 남한 땅이 될 수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를 그려놓은 기념관에 이르러 세상에서 가장 서글프고 아린 조형물을 마주한다. 벽 한쪽을 채운 거대한 부조(浮彫)를 전장의 탄피로 만들었다니. 탄피가 아아갔을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역장이 무너져 내릴 듯 가슴이 아려온다. 먹먹함을 머금은 채 기도하는 손을 형상해 놓은 백마고지 전적비를 지나온다. 발길은 자유의 종에 이르러 있다. 종소리는 울리지 않고 멀리 백마고지는 눈물 어린 애상한 눈으로 길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DMZ를 따라 걷는 길

진입 금지 차단 줄을 걷고 병사들을 뒤따라 DMZ로 들어선다. 눈길을 관통해 저쪽에서 넘어다보기만 했던 ‘통일야, 평화야, 철원야’ 조형물을 지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상주할 수 없는 농지, 전차방지 방벽이 서글프게 늘어서 있는 땅, 아물지 않은 상처에 아직 새살이 돋아나지 않은 곳.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질 때마다 가슴이 갑갑해지고 손가락이 저러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내 무관심 때문이리라. 휴대전화를 내려두고 남북한계선을 따라 길동무들과 함께 걷는다. 눈이 따라올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이 길손을 감싸 안는다. 어디서도 만난 적 없는 말간 녹음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번져온다. 투명한 혈액이 나를 끌고 간 듯 훼손되지 않은 맑음이 온몸을 관통한다. 자연에는 경계가 없거늘, 인간의 역사가 철조망이라는 비극의 상징물로 시간과 대지를 갈라놓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청정 무공해의 멋들어진 자연 풍광이 서글프게만 느껴진다.

1 기도하는 손을 형상해 놓은 백마고지 전적비 2 안내해설사의 설명에 따라 DMZ 투어가 이뤄진다. 3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서 바라보는 DMZ



참조팝나무, 백일홍, 노루오줌 등 색색의 꽃들이 피고 진 만큼 세월은 흘러 있다. 날이 더운지도 모른 채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묵묵히 걷는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인 듯,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듯 길벗들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길을 간다. 등이 축축해져 오고 이마에 맺힌 땀이 목을 타고 흐를 즈음,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도착한다. 땅 모양을 빗대어 이름 붙였다는 공작새 능선과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설명을 귀동냥하며 포토라인에 선다. 풍경만 찍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양손을 모아본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일 수 없는 뼈아픈 역사는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DMZ를 가슴에 담는다.

비상주 GP에서 북한을 바라보다

통문을 지나오는 길, 유해발굴단을 본다. 국군 전사자 200여 구와 유엔군 전사자 300여 구의 유해가 묻혀있다는 화살머리고지. 발굴단이 온 마음을 다해 전사자들을 찾아주기를 염원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차를 뒤로하고 비상주 GP로 향한다. 굽은 길을 달려 도착한 곳, 총알로 별집이 된 철모와 수통을 만난다. 그 군모를 쓰고 수통을 지녔을 군인의 모습이 눈앞을 지나간다. 울음을 삼키듯 나도 모르게 눈을 내리

감는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나라 역사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분단의 현실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지나간다.

일행을 따라 계단을 오른다. 초소를 지키고 선 무장 헌병과 필력이는 한국 국기와 유엔기가 눈에 들어온다. 철망으로 가로막힌 감시초소 위의 하늘은 더없이 드넓다.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잊지 못해 한국에 물어달라고 유언했다는 프랑스 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이 보이는 철망으로 향한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다. 철조망만 아니라면, 해설사의 설명이 없다면 숲이 우거진 땅에 불과했을 땅의 이름, 북한을 무감각하게 읊조려본다. 눈앞에 두고도 왜 저곳에 가볼 수 없느냐며 울먹이는 참전 군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쟁 세대가 아닌 나는 그 그리움이 어떠한지, 통일을 염원하는 절박함이 무엇인지 그들만큼 절절하게 알지는 못한다. 60년이 넘게 부유하는 땅으로 남겨진 이곳에 발을 디더보며 실감한 유일한 한 가지는, 전쟁의 흔적이 뼈아픈 시름으로 이 땅 곳곳에 깃들어 있고 그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뿐이다. 철조망에 찢린 듯 따끔거리는 가슴을 문지르며 비상주 GP를 벗어난다. 내 키보다 훨씬 더 자라있는 싱그러운 풀잎처럼 이 땅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을 날을 그리며 DMZ와의 짧고도 긴 동행을 가슴에 머금어 본다. ㉠



1

NEWS BRIEFING

2019. 08.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 마련...
교육 관련 활동 장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마련됐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유튜브 활동 교원은 총 934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된다. 근무 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초등 3~6년 '사회·수학·과학'
검정교과서 전환



교육부가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 재구성 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 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 과목과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체제를 유지한다.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검정 전환 관련 업무 매뉴얼 보급, 교과서 웹 전시 등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교원업무 간소화를 지원하고 교과서 선정·활용 연구 등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 있게 달라져요”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영어 노출 및 사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공지능과 1:1 대화 연습 및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안 밖에서 풍부한 듣기·말하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읽고 싶은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를 구비한 EBSe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전자도서와 오디오북, 텍스트북을 확충하고 사전 찾기, 단어장, 퀴즈 등 학습활동까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과 연계하여 편안한 학습 공간에서 영어도서·학습교구·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놀이터'도 지원한다. 기존의 영어체험실 등이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영어놀이터'는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이외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화상 영어수업, 영어캠프 등도 지원하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에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확대 배치한다.

학교 미디어 교육,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내실화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한다. 1인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등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을 반영하여 주제 중심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학교 내 제작 체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미디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미디어 교육 연계망을 강화한다. 미디어 관련 이동형 교실(체험 버스 등) 운영, 지역 미디어 센터 활용도 제고와 학생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 교육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장기반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부처와 지역 사회 협업을 통한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 다가오는 여름방학, 안전 더 안전하게!] 최근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생존수영 교육, 재난대비훈련, 학교 안전동아리 등의 사례들이 반갑다. 단순히 교육시간만 늘리는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이라 기대가 된다. 어쩌면 학교에서 배워온 생존수영을 휴가지에서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 할 방법을 배워올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기대된다. 모니터단 조수정

[정책 토크_ "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니 감회가 새롭다. 경제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거의 백 퍼센트에 가까운 고교 진학률을 생각했을 때 무상교육은 당연한 정책이라 본다. 더군다나 경제적 현실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조차 어려웠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안도의 희망감을 안겨줄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 인재양성에 적극 도움 될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모니터단 백인대

[교육포커스_ 2세대를 위한 교육]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2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 방식을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준비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처럼 틀에 박힌 교수학습 활동에 머무른다면, 학교는 새로운 학생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 걸맞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해야 한다. 모니터단 나수진

EVENT

8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고교 무상교육은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김진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박은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민정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발행일 2019년 8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양지선 (객원)김청한, 김혜진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2019 꿈사다리 장학제도 예술캠프
예술교육, 사각지대 NO!
예술에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예술분야 꿈사다리 장학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예술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교육 중2~고3(5년간) 장학금과 방학예술캠프, 대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등
- 선발인원 미술·음악분야 총 30명
- 문의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044-203-6692 / 6645

